韓國青少年 性問題에 관한 文献研究

Korean Youth's Profile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金 漢 敬

南 貞 子

1985. 12.

韓國人口保健研究院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머 리 말

本 研究는 青少年의 "性"과 出産健康에 관한 最近 우리나라의 研究들을 體系的으로 綜合 檢討하여 整理한 것이다. 우리나라 青少年 出産健康에 관한 研究資料는 數的으로 매우 드물었으며 研究對象이 주로 中·高等學校 學生을 對象으로 한 碩·博士 學位 論文이 대종을 이루고 있었고 學校외 青少年(out of school youth)에 관한 研究는 매우 드물었다. 또한 各 研究들은 對象集團이나 研究方法이 다를 뿐만 아니라 調査項目 等이 標準化 되어있지 않아 研究結果를 比較하는데 많은 制限이 있었다.

그러나 本 研究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이 分野 研究의 範圍를 把握하고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研究分野를 決定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어지며 특히 青少年 政策立案者나 관련 事業者들에게 손쉽게 參考資料로 活用될 수 있다는데에 그 意義가 있다고 본다. 또한 本 研究를 支援해준 WHO를 통해 우리나라 青少年의 現況과 問題點을 外國에 紹介한다는 점에서도 意義가 크다고 보여진다.

그동안 本 研究를 위해 技術的 支援을 해준 WHO의 Dr. Herbert Friedman에게 深甚한 謝意를 표하며 방대한 量의 資料蒐集과 整理를 위해 많은 時間과 努力을 기울여준 韓惠卿, 柳明順 諸氏께 特別한 感謝를 드린다.

끝으로 本 書에 記載된 結論 및 提言을 包含한 모든 內容은 擔當 研究者의 見解이며 當 研究院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85年 12月 日

韓國人口保健研究院

院長 朴 贊 武

目　　次

Ⅰ. 序　論 …… 1

1. 研究背景　및　研究目的 …… 1

2. 研究方法 …… 3

Ⅱ. 韓國　青少年의　概況 …… 5

1. 青少年　人口 …… 5

2. 青少年의　教育現況 …… 9

3. 青少年의　經濟活動 …… 13

4. 青少年의　意識構造 …… 15

5. 家族形態의　變化와　青少年 …… 17

Ⅲ. 韓國　青少年의　健康狀態 …… 21

1. 身體的　發達狀態 …… 21

2. 死亡　및　疾病様相 …… 23

1) 青少年　死亡様相 …… 23

2) 青少年의　傷病様相 …… 27

3. 青少年의　精神健康狀態 …… 31

4. 青少年의　危險素地性　行爲 …… 33

Ⅳ. 韓國　青少年　性問題의　背景 …… 45

1. 身體的　成熟時期의　變化 …… 45

2. 教育期間의　延長 …… 48

3. 結婚年齡의　遲延 …… 49

4. 異性接觸　機會의　不足 …… 50

5. 性道德觀의 變化 ····· 51
6. 매스콤의 影響 ····· 52
7. 勤勞青少年들의 問題 ····· 54

Ⅴ. 韓國 青少年의 性과 관련된 問題 ····· 55
1. 異性交際에 대한 態度 및 經驗實態 ····· 55
2. 婚前 性交에 대한 態度 및 經驗實態 ····· 58
3. 婚前 姙娠 및 出産實態 ····· 62
4. 人工流産 實態 ····· 67
5. 性的 非行 實態 ····· 69
6. 性病 實態 ····· 73
7. 避姙 使用 實態 ····· 76

Ⅵ. 青少年 性教育 現況 및 青少年 서비스 機關 分析 ····· 80
1. 性教育 現況 ····· 80
2. 性教育 冊子 分析 ····· 86
3. 青少年을 위한 서비스 機關 分析 ····· 92

Ⅶ. 結論 및 提言 ····· 95
參考文獻 ····· 99

Ⅰ. 序　　論

1. 硏究背景 및 硏究目的

靑少年期는 兒童期와 成人期 사이에 있는 過渡期로서 그 구체적인 定義는 觀點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즉 生理的으로 보면, 思春期의 始作에서부터 性的으로 완전히 成熟되기까지의 時期라고 말할 수 있고 心理的 發達段階로 볼 때는 兒童期의 인지적 감정적 發達 패턴에서 完熟한 成人期의 패턴으로 變形되기까지의 時期이며 社會的 側面에서 볼 때는 社會經濟的으로 依存的인 兒童期로부터 완전한 社會成員으로서 獨立되는 時期까지를 일컫는다. 다시 말하면 靑少年期는 生理的, 心理的, 社會的으로 볼 때 "어린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過渡期的 時期이다. 이러한 過渡期的 時期인 靑少年期의 問題는 産業社會에 들어서면서 더욱 深刻해졌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現代社會에서는 兒童들이 身體的으로 思春期에 접어드는 時期가 일러지고 있는 반면 社會構造가 복잡해지면서 社會에서의 成人役割의 遂行에 긴 準備期가 必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學校敎育의 普遍化와 敎育期間의 延長, 結婚時期의 遲延 等으로 인하여 社會的 脈絡에서 成人으로서의 役割은 遲延되고 있어 靑少年期가 앞뒤로 延長되고 있는 實情이다. 이와 같이 긴 靑少年期의 "힘든 주변인의 身世"[1]는 靑少年들의 自我正體意識(self-identity)形成에

---

1) 주변인(marginal man)이란 과도기에 있는 청소년을 아동과 성인의 한계선상의 인간으로 본 것으로써 이들은 아동집단과 성인집단이 분리되는 경계선상에서 있으며 때로는 두집단의 성격을 공유하기도 하는 특징을 갖는다.
정범모, "국가발전과 청소년",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청소년문제세미나보고서, 1977. 참조.

支障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과 成人들간의 價値觀의 差異를 더욱 深化시킨다. 또한 그러한 青少年期의 주변성은 社會心理的 獨立性과 自律性에 대한 젊은이들의 강렬한 欲求를 制約함으로써 不滿과 疏外感을 일으키는 結果를 빚어낸다. 특히 青少年期는 肉體的으로 生殖能力과 出産能力을 갖게되며 性的 好奇心 혹은 性的 衝動이 旺盛해지는 時期인데도 不拘하고 실제의 性的인 行爲가 制限된다는 점에서 心理的으로 매우 葛藤的인 狀況에 놓이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1960,70年代의 急激한 産業化 過程은 傳統的 價値體系나 文化價値에 衝擊과 變化를 가져왔으며 특히 性開放 風潮의 蔓延과 各種 大衆媒體에 의한 性情報의 범람은 性的 刺戟을 深化시키는 要因으로 등장하고 있어 青少年의 性과 關聯된 問題(sex related problems)가 계속 增加하는 趨勢를 보이고 있다. 最近 施行된 硏究[2]에 의하면 서울市 男女高等學生 1,210名 中 21.2%가 性交經驗을 가진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로 인한 婚前 姙娠 및 出産, 未婚母 問題도 社會問題化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青少年 性問題에 대해 消極的인 態度를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青少年 性問題에 관한 硏究나 그 解決策을 마련하기 위한 努力도 매우 부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青少年의 性問題가 青少年 個人에게 局限된 問題만이 아니며 그로 인한 出産 등이 社會에 끼칠 수 있는 影響을 考慮할 때 青少年의 性問題를 豫防할 수 있는 여러가지 對策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硏究도 活發해져야 하리라고 본다.

---

2) 조정숙, "고교생의 성교육 필요성에 관한 고찰",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1.

그런 意味에서 본 硏究는 韓國靑少年의 性問題를 中心으로 하여 그 現況과 問題點을 밝히고 靑少年 問題의 解決策을 模索하는데 必要한 參考資料로 活用하기 위한 目的으로 이루어졌다.

본 硏究의 具體的인 目的은 다음과 같다. 첫째, 韓國 靑少年 問題의 一般的인 背景을 考察한다. 둘째, 韓國 靑少年의 性에 대한 態度 및 性으로 인해 惹起되는 諸般問題를 把握한다. 셋째, 性敎育 現況 및 旣存 性敎育 책자의 內容을 分析하여 補完되어야할 點을 提示한다. 또한 靑少年을 위한 旣存 서어비스 기관의 實態와 그 事業現況을 把握한다.

2. 硏究方法

본 硏究의 方法으로는 지금까지 이 分野에서 이루어진 硏究論文과 文獻을 選擇的으로 考察하며 各種 統計資料에서 靑少年期에 해당되는 資料를 拔萃, 정리하는 方法을 使用하였다.

그러나 靑少年에 관한 資料는 人口, 敎育人口, 經濟活動人口, 非行實態 等과 같이 人口센서스 資料로부터 分析된 統計資料 및 其他 政府統計資料 外에는 全國的인 規模의 資料를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全國의 中·高等學生을 母集團으로하여 標集된 調査가 있었을 뿐 大部分의 硏究는 制限된 地域의 中·高等學生만을 對象으로 한 硏究로서 主로 碩士學位 論文이었다. 또한 學生 以外의 非學生靑少年(out of school youth)에 관한 資料가 極히 貧弱하다는 것도 重要한 脆弱點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各 硏究結果를 一般化시키는데는 問題가 있으며 특히 各 硏究마다 調査對象의 特性 및 크기, 質問紙 構成의 形態, 調査方法 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硏究結果를 比較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위와 같은 制限點에도 不拘하고 旣存의 硏究論文 및 文獻을 利用하는 方法은 韓國 靑少年의 性問題의 全般的인 傾向을 把握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이루어진 硏究의 範圍를 分析하고 앞으로의 硏究方向을 提示할 수 있다는 점에서 意義가 있다고 하겠다.

Ⅱ. 韓國 靑少年의 槪況

이 章에서는 韓國 靑少年의 現況을 把握하기 위하여 靑少年 人口, 敎育, 經濟活動, 意識構造, 家族形態 等으로 나누어 簡單히 살펴보고자 한다.

靑少年의 年令期間(區間)을 몇 歲부터 몇 歲까지로 잡느냐 하는 問題에 대해서는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여러가지 意見이 있다.

Werkman[3]은 靑少年期의 年令區間을 12 ~ 21才로 정하여 12~14才를 早期靑少年, 15 ~ 17才를 中期靑少年, 18 ~ 21才를 後期靑少年으로 區分하고 있으며 UN[4]은 靑少年 年齡 範圍를 15 ~ 24 才로 정하고 있다. 본 硏究에서는 WHO[5]의 基準에 따라 靑少年 年令區間을 10 ~ 24才로 정하고자 한다. WHO의 基準을 選擇한 理由는 一般 統計資料를 活用하는데 편리하며 10 ~ 14才의 早期靑少年의 現況도 把握하려는 意圖 때문이다.

1. 靑少年 人口

1980年 現在 靑少年(10 ~ 24歲) 人口는 12,734千名으로 全體

---

3) Werkman, S. L.,"Psychiatric Disorders of Adolescence", American Handbook of Psychiatry, 2nd Ed., Vol.2 1975.

4) ESCAP,"The Situation of Youth in the Asia and Pacific Region", note by the secretariat for the Regional Preparatory Meeting for the International Youth Year, 1983.

5) WHO,"Young People's Health - A Challenge for Society", report of WHO Study group on Young People and Health for all by the year 2000, 1985.

人口의 約 $\frac{1}{3}$ (33.8 %)을 차지한다. 青少年 人口는 1960年 以來로 每年 增加해 왔고 全體 人口 中 青少年 人口의 比率도 높아지고 있어 韓國社會의 青年化 傾向을 보여주고 있다.(表Ⅱ－1參照)

〈표Ⅱ－1〉 연도별 청소년인구

(단위 : 천명)

연 도	전 연 령		10 ～ 24 세	
	인 구	1960 년대비 증가율 %	인 구	1960 년대비 증가율 %
1960	24,963		7,376(29.5 %)	
1966	29,160	16.8	8,597(29.5 %)	16.6
1970	31,435	25.9	10,004(31.8 %)	35.6
1975	34,679	38.9	11,797(34.0 %)	59.9
1980	37,407	49.9	12,734(34.0 %)	72.6

자료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0 년 인구및 주택센서스보고」, 1981.
주 : ( ) 안은 전체인구에 대한 청소년인구 비율임.

青少年의 人口移動 現況을 보면 약 1/4에 해당하는 青少年(10～24才)이 地域間 移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人口 移動率은 年齡이 增加할수록 높아져서 20～24才의 境遇는 全體的으로 約 $\frac{1}{3}$ (31.4 %)에 해당하는 人口가 移動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市部의 境遇는 40.2 퍼센트나 되는 높은 比率의 人口가 移動한 것으로 나타났다. (表Ⅱ－2參照)

〈표Ⅱ－2〉 청소년의 연령별 이동인구(1980년도)

(단위 : 천명)

현거주지	10세이상 청소년인구	이동인구			
		계	10-14	15-19	20-24
전국	12,734	2,986 (23.4)	634 (14.3)	1,081 (22.5)	1,271 (31.4)
시부	7,442	1,088 (22.7)	550 (24.4)	94 (36.6)	1,044 (40.2)
군부	5,291	445 (8.4)	84 (3.8)	134 (8.1)	227 (15.6)

자료 : 경제기획원 「1980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 1981.
주 : ( )안은 이동율임.

地域間 青少年 人口의 移動 樣相을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青少年 人口는 主로 郡部에서 市部로 移動한 것으로 나타났고(43.8%) 市部에서 다른 市部로 移動한 人口도 41.0퍼센트나 되었다. 그러나 市部에서 郡部로 移動한 人口는 단지 7.7퍼센트에 불과하여 農村 青少年의 都市流入現象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農村 青少年의 都市流入現象(郡部～市部間의 移動)을 年度別로 比較해보면 産業化 初期 段階인 1965～1970 年度(48.5%)에 비해서는 다소 둔화되고 있는 傾向을 엿볼 수 있다.(表Ⅱ－3參照)

〈표Ⅱ－3〉 청소년(10～24세)의 시부·군부간 인구이동

(단위 : 천명)

구 분	1965～1970	1970～1975	1975～1980
전 국	1,827(100.0)	2,119(100.0)	2,985(100.0)
시부 → 시부	577(31.6)	772(36.4)	1,224(41.0)
시부 → 군부	132(7.2)	170(8.0)	212(7.1)
군부 → 시부	887(48.5)	945(44.6)	1,307(43.8)
군부 → 군부	231(12.6)	215(10.1)	231(7.7)
미 상	-	17(0.8)	9(0.3)

자료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70,1975,1980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주 : ( ) 안은 구성비임.

青少年 人口를 그들이 속해있는 社會集團別로 나누어 보면 56.4%는 學生人口이며 24.8%는 就業人口인 것으로 나타나 나머지 18.8%의 人口가 遊休人口임을 示唆해주고 있다.(表Ⅱ－4參照) 이들 遊休人口 중에는 虞犯이나 非行青少年이 상당히 包含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나 遊休青少年의 動態나 現況에 대해서는 전혀 把握이 되고 있지 않은 實情이다.

〈표Ⅱ－4〉 사회집단별 청소년인구 분포

(단위 : 천명)

연 령	인 구	재학생(비율)	근로청소년(비율)	기 타(비율)
10 ～ 14	4,440	4,330(96.9 %)		
15 ～ 19	4,239	2,514(59.3 %)	1,193(28.1 %)	532(12.6 %)
20 ～ 24	4,054	366(9.0 %)	1,971(48.6 %)	1,717(42.4 %)
계	12,733	7,180(56.4 %)	3,164(24.8 %)	2,389(18.8 %)

자료 : 경제기획원, 「198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 1981.

2. 青少年의 教育現況

1984年 4月1日 현재 全體 教育人口는 幼稚園부터 大學院까지 11,395,083名으로 1975年에 비해 23.37 %가 增加되었다. 1975年度부터 最近 10年間 教育人口의 推移를 보면 每年 0.8 %～3.9 % 폭으로 增加를 보이다가 1982年부터 약간 둔화되었다.(表Ⅱ－5參照)

〈표Ⅱ－5〉　연도별 학교 교육인구

(단위 : 명)

연 도	총 수	대전년 증가비(%)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975	9,236,092	2.8	32,032	5,599,074	2,026,823	1,123,017
1976	9,395,551	1.7	37,197	5,503,737	2,116,635	1,253,676
1977	9,614,996	2.3	41,866	5,514,417	2,195,770	1,350,000
1978	9,962,386	3.6	47,571	5,604,365	2,298,124	1,454,376
1979	10,303,379	3.4	57,430	5,640,712	2,394,620	1,565,355
1980	10,634,520	3.2	66,433	5,658,002	2,471,997	1,696,792
1981	11,047,873	3.9	153,823	5,586,494	2,573,945	1,823,039
1982	11,206,483	1.4	168,653	5,465,248	2,603,433	1,922,221
1983	11,303,133	0.9	206,404	5,257,164	2,672,307	2,013,046
1984	11,395,083	0.8	254,438	5,040,958	2,735,625	2,092,401

연 도	대학교 (대학원)	초·교대	전문학교 (대학)	특수학교	각종학교	기타학교
1975	222,856	12,291	58,500	6,523	73,696	81,280
1976	245,101	9,789	68,095	6,787	79,353	75,181
1977	268,549	8,017	86,120	7,342	71,834	70,481
1978	296,933	9,111	110,145	7,707	69,836	64,218
1979	356,134	9,997	139,935	8,144	76,544	54,508
1980	436,918	9,819	164,657	8,904	77,309	43,689
1981	580,607	10,476	199,553	9,787	75,404	34,745
1982	715,333	11,279	218,136	10,726	64,993	26,461
1983	833,189	12,012	218,205	11,499	57,254	22,053
1984	933,032	14,283	230,353	12,551	59,958	21,484

자료 :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85.

한편 全體 教育人口 中 女學生의 比率은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 別로 45% 以上을 維持하고 있는데 특히 高等學校와 初·教大에서의 女學生 比率은 꾸준히 增加해 오고 있다.(表Ⅱ-6參照)

〈표Ⅱ-6〉 연도별 각급학교의 여학생비율

(단위 : %)

연도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초·교대	전문학교(대학)	특수학교	각종학교	기타학교
1975	44.1	48.3	42.2	38.1	26.5	59.2	25.3	39.0	38.6	46.5
1976	44.1	48.4	43.0	38.3	26.1	52.2	25.4	39.1	58.2	46.1
1977	43.8	48.4	43.8	39.2	25.1	59.0	25.1	38.6	55.5	46.2
1978	44.6	48.5	44.9	40.0	26.4	59.9	24.6	37.6	60.4	46.5
1979	44.7	48.5	46.1	41.5	23.4	69.9	24.2	37.8	61.9	43.5
1980	45.2	48.5	47.0	42.6	22.1	78.7	26.0	38.1	63.6	39.5
1981	45.6	48.5	47.0	43.1	22.4	82.7	27.3	38.0	61.0	35.8
1982	45.7	48.5	47.9	43.6	23.7	84.5	29.6	37.6	60.7	32.8
1983	45.9	48.5	48.0	44.6	25.2	84.4	33.7	38.7	58.2	27.4
1984	46.5	48.5	48.2	45.4	26.1	83.7	35.3	38.7	57.5	26.3

자료 :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85.

그러나 우리나라의 學校教育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批判받고 있다.

첫째, 學校教育의 目的이 青少年의 全般的인 成長과 發達을 促進시켜 社會에 寄與하는 健全한 市民으로 育成시키는데 있다기보다는 上級學校에 進學하기 위한 過程으로 잘못 認識되고 있다. 이 재창의 研究에 의하면 青少年들이 苦悶하는 問題 中 가장 큰 것이 學業成績

(37.4 %) 이며 그 다음이 進學, 進路問題 (19.8 %) 인 것으로 나타났다.[6)]

둘째, 學校의 教育環境이 未備하다. 1985 年度 文教統計에 의하면 中學校의 境遇 한 學級 當 學生數가 61 名 以上인 경우가 68.2퍼센트나 되며 高等學校의 경우는 한 學級 當 學生數가 51 名 以上인 경우가 94.9 퍼센트나 되었다. 또한 서울 地域의 境遇 36 學級 以上의 過大學校도 中學校 中 49.1 퍼센트, 高等學校 中 54.1 퍼센트나 된다.[7)] 한 研究[8)]에 의하면 教導主任 教師를 配置해야 하는 18 學級 以上의 學校 中 有資格 教導主任 教師가 있는 境遇는 中學校가 59.7 퍼센트, 高等學校가 63 퍼센트에 不過하며 無資格 教師를 教導主任으로 配置한 學校가 21.9 퍼센트, 아예 教導教師가 없는 學校도 19.5퍼센트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學生들을 위한 올바른 指導與件이 갖춰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李의 研究에 의하면 學生들의 57.3 퍼센트가 教師가 學生을 理解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傾向이며 苦悶이 생겼을때 議論하는 對象도 친구 (38.5 %), 議論하지 않음 (31.9 %), 父母 (15.1 %), 兄弟 (12.2 %), 教師 (2.2 %) 等으로 나타났다.[9)]

---

6) 이재창외, 「청소년문제 종합진단연구」 - 자아개념 가치관을 중심으로,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81.

7)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85. p.134,136,234,237.

8) 홍소자, 「학과교육 측면에서의 청소년문제의 원인, 대책」 (학생 생활지도 종합대책 협의회자료),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82.

9) 이재창외, 전게서

3. 青少年의 經濟活動

1984年 現在 14～24才의 青少年人口 8,192千名 中 就業하고 있는 青少年의 數는 2,410千名으로서 全體 青少年의 29.4%를 차지한다. 이들을 年令別, 産業別로 分類하면 表Ⅱ－7과 같다.

〈표Ⅱ－7〉 산업별 취업청소년 인구(1984년도)

(단위 : 천명)

연 령	총인구	취업인구			
		계	농림·어업	광 공 업	사회간접자본및 기타서비스업
계	8,192 (100.0)	2,410 (29.4)	318	1,059	1,033
14	973 (100.0)	15 (1.6)	2	9	4
15～19	3,924 (100.0)	653 (16.6)	86	360	207
20～24	3,295 (100.0)	1,742 (52.9)	230	690	822

자료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4 경제활동인구연보」, 1985.

또한 1984年 現在 全國의 5人 以上 雇傭事業場 100,061個所에서 從事하고 있는 青少年勤勞者數는 1,419,729名으로 全體勤勞者 4,022,696名의 35.3%를 占하고 있고 이를 性別로 보면 男子 464,954名(32.7%), 女子 954,775名(67.3%)으로 女子가 男子보다 2倍以上이다. 産業別로는 위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製造業 從事者가 가장 많고 특히 女子들의 경우 75.3%에 이르고 있다.

〈표Ⅱ－8〉 산업별 청소년근로자 현황(1984년도)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자	여 자
전 산 업	1,419,729(100.0)	464,954	954,775
농 림 업	4,051(0.3)	3,644	407
광 업	8,298(0.6)	7,125	1,173
제 조 업	1,047,129(73.7)	328,329	718,800
전 기 업	3,894(0.3)	2,568	1,326
건 설 업	30,412(2.1)	21,293	9,119
도·소 매 업	98,892(7.0)	33,665	65,227
운수·창고업	83,220(5.9)	28,224	54,996
금 융 업	79,179(5.6)	23,138	56,041
서 비 스 업	64,654(4.5)	16,968	47,686

자료 : 노동부「노동통계연감」, 1985.
주 : ( )안은 구성비임.

10名 以上 事業體에 勤務하는 靑少年勤勞者들을 學歷別로 나누어 보면 61.3%가 中卒 以下이고 특히 女子勤勞者의 約 64%가 中卒 以下이다.(表Ⅱ－9參照)

〈표Ⅱ－9〉 학력별 청소년근로자 현황(1983년도)

(단위 : 명, %)

구 분	계	남 자	여 자
학 력	1,112,550(100.0)	286,277	826,273
중 졸 이 하	681,674(61.3)	153,061	528,613
고 졸	404,618(36.4)	123,692	280,926
초대(전문)졸	15,246(1.4)	5,443	9,803
대 졸 이 상	11,012(1.0)	4,081	6,931

자료 : 노동부,「노동통계연감」, 1984.
주 : 10인이상 사업체 대상임.

이들 勤勞靑少年들의 賃金水準에 대해서는 正確한 統計値가 나와있지 않으나 勤勞靑少年들의 73.7%가 從事하는 製造業의 境遇 男子 月平均 給與額이 383,787원이며 女子의 月平均 給與額은 127,971원으로 되어있다.[10]

以上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에서 經濟活動에 參與하는 靑少年들은 73.7%가 製造業에 從事하고 있고, 大部分이 中卒 以下의 學歷을 가지며 賃金水準도 비교적 낮고 특히 女子인 境遇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靑少年의 意識構造

우리나라 靑少年들의 意識構造에 관한 硏究들을 綜合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靑少年들은 利己的, 個人主義的 性向이 强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理由는 傳統的인 家族 中心의 思考와 近代化로 因한 西歐的 個人主義가 結合되는 過程에서 다른 사람의 人格과 權利를 尊重하기보다는 自身의 權利만 主張하려는 非合理的이고 利己的인 個人主義로 發展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11]

둘째, 우리나라 靑少年들은 要領 및 便法主義的 思考方式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指摘되고 있다. 李 勳求의 調査[12] 結果에 의하면 靑少年

10) 한국여성개발원, 「여성백서」, pp.119-123.
11) 임희섭, 「현대 한국에 있어서의 가치지향의 변화와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12) 이훈구, 「청소년의 사회지각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연구노트 9 (3), 1980.

들은 "努力에 의해서 出世하려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다."(91.9%) "요즘 世上에서 出世하기 위해서는 方法을 가질 必要가 없다."(65.4%)라고 反應하여 青少年들이 상당한 程度로 要領主義, 便法主義 性向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 青少年들은 物質主義的 性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9.3퍼센트의 青少年들이 돈을 世上에서 제일 重要한 것으로 여기며 85.2퍼센트는 現 社會를 黃金萬能主義가 支配하는 社會라고 보고있다.[13]

넷째, 우리나라 青少年들은 既成世代에 대한 不信意識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青少年들은 自身들을 開放的, 自由主義的, 理性的, 個性的, 現實的, 意慾的이며 健全하고 抵抗的, 進取的 性向이 强하다고 評價하는 反面 既成世代는 閉鎖的이고 權威的이며 利己的, 感覺的, 劃一的, 順從的, 保守的이라고 評價하고 있어 既成世代를 前近代的이고 否定的으로 認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4]

한편 韓國教育開發院의 同 硏究에 의하면 우리나라 青少年의 價値觀은 地域別, 性別, 社會經濟的 地位別 成長地域別로 큰 差異를 보이고 있다. 즉, 都市青少年들은 農村青少年에 비해 物質的 安樂, 自由, 社會的 認定, 能力 等을 더 重要視함으로써 農村青少年보다 物質指向的, 自己實現的 價値를 높이 評價하고 있다.

또한 集團別로 價値觀의 差異를 볼 때 學生集團은 家族의 安全,

---

13) 이재창, 「청소년 의식구조 및 형성배경」, 한국교육개발원, 1983.
14) 이재창, 상게서, p.14.

平和, 成就感 等을 重要視하는 反面 勤勞青少年, 少年院, 矯導所, 孤兒院 集團에서는 物質的 安樂을 重要視하였다.

男女別 差異를 보면 家族의 安全, 宗教的 救援 등은 女子에 의해 더욱 重視되었고 男子들은 異性과의 사랑, 즐길 수 있는 餘裕 등의 快樂指向的 價値와 國家安危 등을 더욱 높이 評價하고 있다.

年齡別로는 年齡이 올라감에 따라 成就感을 비롯한 自己尊重, 理性과의 사랑 등이 重要視되고 있어 成熟함에 따라 自己實現에 더 많은 關心을 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青少年의 價値觀은 家庭의 社會·經濟的 地位에 따라 差異를 보이는데 社會·經濟的 地位가 낮을수록 物質的 安樂·清潔 및 즐길 수 있는 餘裕 등을 重要視한 反面 社會·經濟的 地位가 높을수록 社會的 認定, 自己統制 等의 自己實現과 關聯된 價値를 重視하는 傾向이었다.

그리고 成長地別로 볼 때 都市出身 青少年이 더 個人指向的인 反面 農村, 山村出身 青少年들은 國家安危에 관해 더 많은 關心을 보이고 있다.[15]

5. 家族形態의 變化와 青少年

1960 ~ 1970 年代의 産業化 過程을 통해 우리나라의 家族形態는 크게 變化되었다. 家族形態의 變化를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

15) 이재창, 전게서

첫째, 平均 家口員數가 계속 減少하는 趨勢로서 '60年代에는 5.6人이던 家族構成員이 '80年에는 4.5人으로 줄었다.(表Ⅱ－10參照)

〈표Ⅱ－10〉 연도별 평균가구원수

(단위 : 명)

지역 / 연도	전 국	도 시	농 촌
1960	5.6	5.4	5.6
1966	5.5	5.1	5.7
1970	5.2	4.9	5.5
1975	5.1	4.9	5.4
1980	4.5	4.4	4.7

자료 : 경제기획원, 「총 인구 및 주택센서스」, 해당년도

둘째, 家族의 類形이 보다 單純해지고 있어 核家族化 되어가는 趨勢로서 '80年 現在 2世代 家族의 比率은 全體 家族의 69.5%로 增加했다.(表Ⅱ－11參照)

〈표Ⅱ－11〉 가족형태의 비율(전국)

(단위 : %)

세대 / 연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이상	단독가구*
1960	7.5	63.9	27.0	1.6	
1966	5.7	67.7	24.0	2.6	
1970	6.8	70.0	22.1	1.1	
1975	6.7	68.9	19.2	0.9	4.2
1980	8.4	69.5	16.7	0.5	4.9

자료 : 경제기획원, 「총인구 및 주택센서스」, 해당년도
*단독가구는 1975년부터 새로이 조사항목에 첨가됨.

위와 같은 家族形態의 變化는 家族構成員 相互間의 關係에 變化를 가져오며 青少年의 性格 및 人格發達에도 影響을 미칠 것으로 推測된다. 즉 核家族은 父母와 子女間의 잦은 接觸 및 親密한 紐帶關係를 造成한다는 長點을 가지는 반면 子女를 統制하고 監督할 사람이 父母밖에 없다는 短點을 지니고 있다. 또한 夫婦가 맞벌이를 하는 境遇 子女를 돌볼 수 있는 時間이 絶對的으로 制限될 수 밖에 없다. 특히 低所得層의 家庭에서 어머니가 生計維持를 위해 就業하는 境遇 子女들은 父親의 位置를 낮게 評價하며 주먹싸움을 한다든지 하는 問題行動을 저지르는 傾向이 있다[16] 고 한다.

한편 現代家族의 또 하나의 두드러진 變化는 離婚率의 增加이다. (表Ⅱ－12參照)

〈표Ⅱ－12〉 발생연도별 이혼율[1]

(단위 : %)

지역 / 연도	전국	서울
1955	2.5	1.6
1966	3.1	4.4
1965	4.8	6.8
1971	4.74	8.86
1972	4.82	8.52
1975	5.61	9.28
1977	6.61	10.27
1979	6.47	9.02

1) 이혼율은 $\frac{\text{신고된 이혼 건수}}{\text{신고된 혼인 건수}}$ 임.

자료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인구동태신고현황」, 1980, pp.18-37.
이태영, 「한국이혼연구」, 1964.

16) 민병근, 이길홍, 김헌수, "근로청소년 자녀들이 지각하는 모친취업의 사회, 정신의학적연구, 「오늘의 청소년」, 제5집, 중앙대 한국청소년문제연구소, 1981.

우리나라에서 父母의 離婚이 子女에게 미치는 影響이 어떠한지에 대한 硏究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父母의 離婚이 變化에 敏感한 靑少年들에게 深刻한 不安의 要素가 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問題家庭과 靑少年 非行사이에는 密接한 관계가 있음이 여러 硏究에서 밝혀졌는데 貧困, 父母缺損, 繼父母 等의 構造的 問題家庭 出身의 非行靑少年의 63.1%가 家出을 하고 있으며 父母疾病, 父母不和, 不信家庭 出身의 非行靑少年들의 81.8%가 家出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또한 模範學生과 問題學生과의 比較硏究를 通해 缺損家庭, 不和家庭, 그리고 疏外家庭은 靑少年 非行과 正比例의 관계를 갖는다는 점이 指摘되었다.[18]

國務總理企劃調整室의 報告에서도 1984年의 104,578名의 少年犯罪者들 中 父母가 있는 境遇는 76.5%, 父親死亡이 10.4%, 兩親死亡이 2.9%로서 缺損家庭 出身의 犯行比率이 15.9%를 차지하고 있다.[19]

---

17) 이기석, 민병근, "비행청소년의 가출에 관한 사회정신의학적 연구",「신경정신의학」제 20권, 제 2호, 1981.

18) 김종령, 한국청소년의 가정환경에 관한 사회정신의학적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1978.

19) 청소년 대책위원회,「청소년백서」,1985.

Ⅲ. 韓國 青少年의 健康狀態

본 章에서는 韓國青少年의 健康狀態를 身體的 發達狀態, 死亡이나 疾病樣相, 精神健康狀態로 나누어 살펴보며 특히 青少年期의 健康에 威脅을 주는 行動特性으로 指摘되고 있는 "危險素地性 行爲"(risk taking behavior)에 대해 考察하고자 한다.

1. 身體的 發達狀態

青少年期에 經驗하게 되는 身體的 變化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身體의 外形的 變化 뿐 아니라 內分泌的 變化와 그에 의한 主觀的, 客觀的 狀況의 變化, 性的 發達 等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分野의 資料는 身長과 體重, 가슴둘레, 앉은키의 變化 程度로 局限되어 있다.

青少年期에 外形的으로 가장 빨리 그리고 比較하기 쉽게 일어나는 것은 身長의 變化이고 그 다음이 體重의 變化이다. 1977年에서 1983年까지의 14 ~ 17才의 青少年들의 平均 身長 및 體重의 變化를 보면 男·女 共히 모든 年齡層에서 꾸준히 向上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表Ⅲ－1, Ⅲ－2參照)

〈표Ⅲ－1〉 평균 신장변화 추이

	14 세		15 세		16 세		17 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77	155.4	153.4	162.1	155.6	165.1	156.7	167.3	156.9
1978	155.4	153.5	162.2	155.6	165.0	156.8	167.6	157.0
1979	156.3	153.7	162.4	155.4	165.5	156.3	167.1	156.8
1980	156.8	153.8	162.2	155.7	165.6	156.5	167.4	157.2
1981	157.7	154.1	163.3	155.8	166.1	156.5	167.7	157.2
1982	158.3	154.4	163.8	155.4	166.3	156.7	167.8	157.1
1983	160.1	154.4	164.8	156.4	166.9	156.7	168.3	157.4

자료 : 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 1984.

〈표Ⅲ－2〉 평균 체중변화 추이

	14 세		15 세		16 세		17 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77	44.5	44.8	51.7	49.1	55.1	50.6	57.8	52.1
1978	44.6	45.1	51.9	49.2	55.2	50.9	57.9	52.2
1979	46.0	46.3	51.7	49.4	55.5	51.7	58.3	52.4
1980	45.9	46.3	51.9	49.4	55.5	51.5	58.5	52.4
1981	46.4	46.4	52.2	49.3	55.7	50.9	58.3	52.3
1982	46.8	46.8	52.7	49.4	56.0	51.3	58.4	52.7
1983	47.9	46.8	53.1	49.8	56.0	51.1	58.7	52.5

青少年 身體發達의 推移는 지난 20年間 (1963 ～ 1983)의 學生들의 身體發達狀態 對比表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표Ⅲ－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3年에 비해 1983年의 青少年들은 키 5.2%, 體重

12.0 %, 가슴둘레 3.7 %, 앉은키 6.4 %씩 成長했다.

〈표Ⅲ－3〉 20년간('63~'83)평균체격 성장율(6세~17세)

구 분		1983평균	1963평균	평균성장치	평균성장율(%)
키 (cm)	男	144.2	136.5	7.7	5.6
	女	141.2	134.9	6.3	4.7
	平 均	142.7	135.7	7.0	5.2
몸무게 (kg)	男	37.8	33.5	4.3	12.8
	女	36.5	33.0	3.5	10.6
	平 均	37.2	33.2	4.0	12.0
가슴둘레 (cm)	男	70.7	68.9	1.8	2.6
	女	69.6	66.5	3.1	4.7
	平 均	70.2	67.7	2.5	3.7
앉은키 (cm)	男	78.6	73.7	4.9	6.7
	女	77.4	72.7	4.7	6.5
	平 均	77.9	73.2	4.7	6.4

자료 : 청소년 대책위원회, 「청소년 백서」, 1984.

2. 死亡 및 疾病樣相

1. 青少年 死亡樣相

우리나라에서 最初로 試圖되었던 姙娠歷(pregnancy history)에 依한 追跡調査(retrospective study)인 世界出産力調査(World Fertility Survey : WFS)와 人口動態標本調査(Continuous Demographic Survey : CDS)等에 나타난 年齡別 死亡率을 보면 10~24才의 青少年들의 死亡率은 비교적 낮고 특히 10~14才의 死亡率은 全 年

齡層 中 가장 낮다. 이를 男女別로 나누어 보면 15 ~ 24 才의 年齡層에서는 女子보다 男子의 死亡率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表Ⅲ-4 參照)

〈표Ⅲ-4〉 특수조사에 의한 연령별 사망율

연 령	1973 ~ 1974:WFS[1]		1978 ~ 1979:CDS[2]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0	30.3	28.4	32.1	42.2
1 - 4	1.0	1.1	2.5	4.3
5 - 9	1.0	1.3	1.1	0.6
10 - 14	0.4	0.8	0.6	0.7
15 - 19	1.1	1.0	1.6	0.7
20 - 24	2.7	1.5	1.7	1.3
25 - 29	1.7	0.8	1.9	1.2
30 - 34	2.5	1.2	2.6	1.3
35 - 39	4.3	2.2	6.3	0.7
40 - 44	7.1	3.1	7.8	4.3
45 - 49	11.3	3.7	10.0	4.2
50 - 54	16.5	5.1	13.0	10.0
55 - 59	24.5	9.5	24.6	6.0
60 - 64	33.5	18.5	44.3	18.4
65 - 69	61.1	30.9	62.5	28.6

자료 : 1) 경제기획원, 가족계획연구원, 「1974 년 세계출산력조사」, 1977

2) 경제기획원, 「인구동태표본조사」, 1980

1966年부터 1982年 사이의 死亡率 推移를 보면 最近의 青少年의 死亡率은 1960年代보다는 다소 減少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1970年代에 비하면 별 差異가 없었다.(표Ⅲ－5參照)

〈표Ⅲ－5〉 연도별 청소년 사망율 변화추이

연 도	조사대상	10～14세			15～19세			20～24세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1966[1]	전국(센서스자료)	1.2	1.2	1.1	1.9	2.0	1.7			
1969[2]	〃	2.2	2.0	2.4	3.3	3.1	3.4			
1974[3]	전국표본조사	0.6	0.4	0.8	1.1	1.1	1.0	2.1	2.7	1.5
1978[4]	사망신고자료(전국)	0.7	0.6	0.7	1.2	1.6	0.7	1.5	1.7	1.3
1982[5]	〃	0.8	0.9	0.7	1.4	1.8	1.0	1.9	2.5	1.4

자료 1) 박영수, "한국의 연령별 사망율 및 평균수명에 관한 연구" 「공중보건잡지」제7권 제1호, 1970.
2) 김일순, 이동우, "최근 한국인의 사망력 경향에 관한 고찰" 「예방의학회지」제2권, 1969.
3) 경제기획원, 가족계획연구원, 「1974년 세계출산력조사」, 1977
4) 경제기획원, 인구동태표본조사, 1980
5) 〃 〃 1983

青少年들의 死亡 原因을 標準疾病分類 17分類로 나누어 分析한 結果에 의하면 損傷 및 中毒에 해당되는 境遇가 54.9%나 되고 있다.(표Ⅲ－6參照) 死亡原因을 좀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資料는 經濟企劃院의 死因調査 資料로서 死亡原因을 50分類로 區分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不意의 事故가 第1位로서 25.2%를 차지하며 第2位는 藥物中毒으로 13.7%가 해당되었고 徵候, 症狀 및 不明確한

〈표Ⅲ－6〉 청소년의 사인별 비례사망율(%)

(전체사망건수 : 5,061명)

사 망 원 인	전체(10～24세)			10～14세			15～19세			20～24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Ⅰ. 감염성및 기생충성 질환	4.9	3.6	7.3	5.6	4.8	6.7	4.2	2.7	7.3	5.1	3.9	7.4
Ⅱ. 신 생 물	5.7	4.9	7.3	8.7	8.1	9.5	5.6	4.8	7.3	5.0	4.2	6.5
Ⅲ. 내분비·영양 및 대사의 질환과 면역장애	0.8	0.5	1.4	0.5	0.2	1.0	0.7	0.2	1.7	1.0	0.8	1.4
Ⅳ. 혈액 및 조혈기의 질환	0.5	0.3	1.0	0.8	0.6	1.0	0.6	0.5	0.8	0.5	0.2	1.1
Ⅴ. 정신장애	1.1	1.1	1.1	0.9	0.6	1.3	0.6	0.6	0.6	1.5	1.6	1.5
Ⅵ. 신경계및 감각기의 질환	4.5	4.4	4.8	8.7	9.4	7.6	5.4	5.2	5.6	2.9	2.6	3.4
Ⅶ. 순환기계의 질환	12.1	11.6	13.1	14.0	13.9	13.3	10.8	10.0	12.4	12.5	12.1	13.4
Ⅷ. 호흡기계의 질환	2.5	2.2	3.1	3.7	2.6	5.4	2.8	2.7	3.0	1.9	1.7	2.3
Ⅸ. 소화기계의 질환	3.4	2.9	4.3	3.6	2.4	5.4	3.6	3.0	4.9	3.2	3.0	3.6
Ⅹ.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2.1	1.8	2.7	2.6	2.0	3.5	2.3	2.0	2.8	1.8	1.6	2.4
Ⅺ. 임신·분만및 산욕의 합병증	0.5	－	1.4	－	－	－	0.1	－	0.4	8.6	－	2.6
Ⅻ. 피부및 피하조직의 질환	0.1	0.1	0.2	0.1	－	0.3	0.2	0.2	0.4	0.0	－	0.1
ⅩⅢ. 근·골격계및 결합조직의 질환	0.4	0.5	0.3	0.4	0.4	0.3	0.2	0.3	0.2	0.6	0.7	0.3
ⅩⅣ. 선천성 이상	0.4	0.4	0.3	1.2	1.1	1.3	0.4	0.5	0.2	0.1	0.1	0.1
ⅩⅤ. 주산기에 관련된 명백한 병태	0.0	－	－	－	0.2	－	－	－	－	－	－	－
ⅩⅥ. 증상·증후및 불명확한 병태	5.9	5.1	7.5	6.8	5.7	8.6	4.6	4.2	5.4	6.4	5.4	8.4
ⅩⅦ. 손상 및 중독	54.9	60.5	44.0	42.6	47.9	34.9	57.8	63.1	47.1	56.6	62.2	45.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공세권외,「한국의 사망력과 사망원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3.

病態가 3位로서 11.0%였고 自殺이 4位로서 9.6%나 되었으며 交通事故도 4.4%로서 5位를 차지하고 있었다.(表Ⅲ-6參照)

〈표Ⅲ-6〉 50분류에 의한 사인별 청소년(10~24세)사망순위

순 위	사 인	수	비례사망비
제 1 위	불의의 사고 및 부작용	3,027	25.2 %
제 2 위	중독 및 독성영향	1,644	13.7 %
제 3 위	증상·징후및 불명확한 병태	1,325	11.0 %
제 4 위	자 살	1,149	9.6 %
제 5 위	결 핵	659	5.5 %
제 6 위	자동차 교통사고	533	4.4 %
기 타		3,655	30.4 %
계		11,992	100.0 %

자료 : 경제기획원, 사망원인통계, 1982.

2) 青少年의 疾病樣相

1965年부터 1975年 사이에 調査 發表된 傷病資料를 綜合하여 整理한 김정순의 硏究에서 보면 10代 青少年의 傷病率은 1,000名當 74.3~138.4로 他 年齡層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表Ⅲ-7參照)

또한 最近(1983年)에 全國 規模로 調査된 傷病調査 結果에서도 10~24才의 青少年들은 다른 年齡 集團에 比해 가장 낮은 傷病率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15~19才層의 傷病率은 人口 1,000名當 87.7로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10~14才로서 92.3,

〈표Ⅲ－7〉 연령별 상병율 추이(1,000명당)

조사연도	조사지역	연령						
		0－9	10－19	20－29	30－39	30－49	50－59	60＋
1965.11	도 시	283.5	138.4	162.3	351.2	294.4	313.0	299.5
1968. 8	농 촌	145.7	75.1	97.9	99.2	240.4	247.2	255.4
1969. 1	농 촌	128.8	90.4	120.7	178.8	238.1	243.1	202.9
1971. 8	전 국	262.2	128.2	124.5	198.5	215.2	302.2	407.1
1974.11	농 촌	159.6	74.3	103.4	177.5	244.4	306.6	282.8

자료 : 김정순외, "사망및 상병자료에 반영된 한국인의 질병양상" 「공중보건잡지」, 제 13 권 제 3 호, 1986。pp.70-95.

그 다음이 20 ～ 24 才로서 99.1 %로 나타났다.[1](表Ⅲ－8參照)

〈표Ⅲ－8〉 1983 년도 연령별 상병율(1,000명당)

(조사대상, 21,849명)

연 령	상병율	연 령	상병율
0 ～ 4 세	279.5	35 ～ 39 세	175.2
5 ～ 9 세	149.5	40 ～ 44 세	200.9
10 ～ 14 세	92.3	45 ～ 49 세	246.5
15 ～ 19 세	87.7	50 ～ 54 세	278.4
20 ～ 24 세	99.1	55 ～ 59 세	288.0
25 ～ 29 세	111.5	60 ～ 64 세	276.0
30 ～ 34 세	141.0	65 ～ 69 세	323.9

자료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국민건강조사보고서 1983 자료로부터 본 연구를 위해 연령별 상병율을 구하였음.

한편 社會經濟的 水準에 따른 靑少年 傷病率의 差異를 보기 위해 都市 零細地域 住民과 都市 中産層 住民을 對象으로 調査한 硏究를 살펴보면 10 ~ 14才層은 零細地域과 中産層 사이에 傷病率의 差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5 ~ 19才層은 零細地域 靑少年의 傷病率이 中産層 靑少年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Ⅲ - 9 參照)

靑少年들의 疾病樣相을 分析할 수 있는 硏究는 매우 制限되어 있고 10代의 疾病을 17分類로 나누어 그 分布를 나타낸 結果도 靑少年들의 疾病樣相을 明確하게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表Ⅲ - 10 參照)

〈표Ⅲ - 9〉 연령별, 사회경제수준별 15일간의 상병율(1,000명당)

	영세지역	중산층
전 체	290.4(6,953)	218.5(2,600)
0 ~ 4세	456.2(616)	383.0(235)
5 ~ 9세	168.4(843)	215.2(302)
10 ~ 14세	148.5(1,057)	155.2(335)
15 ~ 19세	145.5(880)	112.1(232)
20 ~ 29세	210.9(1,029)	112.9(381)
30 ~ 39세	327.4(849)	166.3(418)
40 ~ 49세	468.2(991)	269.4(360)
50 ~ 59세	503.8(397)	272.2(180)
60+세	525.8(291)	420.4(157)

자료 : 변종화외,「도시저소득층 지역보건의료 실태조사보고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2.

주 : ( ) 안은 조사대상자 수임.

〈표Ⅲ－10〉 성별, 지역별 청소년의 질병분포

(단위 : %)

질병분류 (17분류)	10 ~ 14 세						15 ~ 19 세					
	도시영세지역			도시중산층			도시영세지역			도시중산층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Ⅰ.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12.7	19.1	13.9	7.7	10.7	4.2	7.0	7.8	6.3	3.8	－	6.7
Ⅱ. 신 생 물	0.6	1.5	－	1.9	3.6	－	－	－	－	－	－	－
Ⅲ. 내분비·영양및 대사의 질환과 면역장애	2.5	－	－	－	－	－	3.1	1.6	4.7	－	－	－
Ⅳ. 혈액 및 조혈기의 질환	1.9	1.5	2.5	1.9	3.6	－	2.3	1.6	3.1	－	－	－
Ⅴ. 정 신 장 애	－	－	－	－	－	－	1.6	1.6	1.6	－	－	－
Ⅵ. 신경계 및 감각기의 질환	10.2	1.5	10.1	1.9	－	4.2	7.0	10.9	3.1	7.7	9.1	6.7
Ⅶ. 순환기계의 질환	0.6	－	1.3	1.9	－	4.2	3.1	3.1	3.1	－	－	－
Ⅷ. 호흡기계의 질환	29.9	47.1	34.2	50.0	60.7	37.5	21.9	21.9	21.9	34.6	27.3	40.0
Ⅸ. 소화기계의 질환	12.1	4.4	12.7	11.5	3.6	20.8	21.9	20.3	23.4	11.5	9.1	13.3
Ⅹ.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1.3	2.9	2.5	3.8	－	8.3	2.3	－	4.7	3.8	－	6.7
Ⅺ. 임신·분만및 산욕의 합병증	－	－	－	－	－	－	－	－	－	－	－	－
Ⅻ.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9.6	10.3	5.1	5.8	7.1	4.2	8.6	9.4	7.8	3.8	－	6.7
ⅩⅢ. 근 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7.6	1.5	6.3	3.8	3.6	4.2	10.9	9.4	12.5	11.5	18.2	6.7
ⅩⅣ. 선천성 이상	－	－	－	1.9	3.6	－	－	－	－	－	－	－
ⅩⅤ. 주산기에 관련된 병태	－	－	－	－	－	－	－	－	－	－	－	－
ⅩⅥ. 증상·징후 및 불명확한 병태	6.4	8.8	5.1	1.9	3.6	－	3.1	4.7	1.6	11.5	18.2	6.7
ⅩⅦ. 손상 및 중독	4.5	1.5	6.3	5.8	0.2	12.5	7.0	7.8	6.3	11.5	18.2	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57)			(52)			(128)			(26)		

자료 : 변종화외,「도시저소득층 지역보건의료 실태조사보고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2.

3. 青少年의 精神健康狀態

1968年 9月 1日부터 1978年 8月 31日까지의 10年間 高麗大 附屬病院 神經精神科 外來 및 入院患者 中 12～21才의 青少年 患者 1,364名을 對象으로 한 硏究[20]結果에 의하면 年度別 青少年 患者數는 增加하고 있는 實情이나 總患者數에 대한 青少年 患者의 比率은 1969年 以來 별 變化없이 약 8퍼센트 程度로 固定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表Ⅲ－11參照)

〈表Ⅲ－11〉 연도별 환자수 및 비율

연 도 \ 환자수	청소년 환자수(%)	총 환자수 (%)
1968	35(14.83)	236(100.00)
1969	71(6.40)	1,110(100.00)
1970	101(7.13)	1,417(100.00)
1971	135(8.75)	1,542(100.00)
1972	152(9.60)	1,584(100.00)
1973	108(6.89)	1,567(100.00)
1974	132(7.93)	1,665(100.00)
1975	152(8.44)	1,802(100.00)
1976	149(7.96)	1,871(100.00)
1977	156(6.75)	2,310(100.00)
1978	173(7.96)	2,174(100.00)
계	1,364(7.89)	17,278(100.00)

자료：조순행, "청소년 정신장애에 대한 임상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제18권 제3호, 1979.

20) 조순행, "청소년 정신장애에 대한 임상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제18권, 제3호, 1979.

그러나 이길홍 등에 의해 1979年 1月부터 1980年 1月 사이에 中央大學校 附屬 聖心病院 神經精神科에 入院한 全體 患者 441名을 對象으로 調査한 硏究에 의하면 靑少年(12 ~ 21才) 患者數는 全體 入院患者 中 19.3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어 最近들어 靑少年 精神疾患者의 急增을 엿볼 수 있다.[21)]

靑少年 精神疾患者에 對한 性別 分布를 보면 男·女比는 1.4-1.3:1로서 男子靑少年의 入院比率이 높게 나타났다.(表Ⅲ-12參照)

〈표Ⅲ-12〉 청소년 입원환자의 성별 분포

조사년도	전체환자수	남 자	여 자	성 비
1968 ~ 1978년 1) 고려대 부속병원	1,364명	796명	568명	1.4 : 1
1979 2) 중앙대부속 성심병원	441명	48명	36명	1.3 : 1

자료 : 1) 조순행, "청소년 정신장애에 대한 임상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제18권 제3호, 1979.
2) 이길홍외, "청소년의 정신건강" 「오늘의 청소년」제6집 중앙대 한국청소년 문제연구소, 1982.

한편 靑少年 入院患者의 診斷分布를 보면 趙[22)]의 硏究에서는 神經症이 3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精神分裂症(25.7%), 氣質性 腦症候群(21%), 情緖精神病(7.3%)등의 순이었으며 李[23)]

21) 이길홍외, "청소년의 정신건강" 「오늘의 청소년」 제6집, 중앙대 한국청소년 문제연구소, 1982.
22) 조순행, 전게서
23) 이길홍, 전게서

의 研究에서도 性格障碍를 包含한 神經症이 42.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李의 研究에 의하면 青少年 入院患者中 24.0 퍼센트가 再修生이었고 26.6퍼센트는 無職青少年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약 절반(49.4%)이 現在 中·高校 및 大學에 在學 중이거나 學業中斷學生인 것으로 나타났고, 發病動機는 入試失敗나 學校選擇과 관련된 後悔와 煩悶이 가장 많고 失戀, 父母死別, 校友關係에서의 不安 등도 重要한 要因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 研究를 통해 이길홍 등은 오늘의 青少年이 當面하고 있는 精神的 問題로서 學歷 위주의 教育風土와 學父母의 過剩教育熱로 因한 "試驗노이로제"를 들고 있으며 특히 再修生이나 學業中斷學生들, 下宿生, 寄宿舍 學生들에게서는 優鬱症이 잘 나타나는 傾向이 있다고 指摘하고 있다.

4. 青少年의 危險素地性 行爲(Risk taking behaviors)

青少年들의 危險素地性 行爲들은 青少年들의 健康에 큰 影響을 미치므로 最近들어 關心의 對象이 되고있다.

여기서는 青少年의 危險素地性 行爲의 類形을 飮酒, 吸煙, 自殺, 事故, 藥物濫用 等으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1) 飮酒

우리나라에서는 1979.12.28. 에 改正된 未成年者 保護法에 의하면 飮酒나 吸煙은 非行의 범주에 包含된다.

12 ~ 21才의 學生 2,449名을 對象으로 調査한 研究에 의하면 14.8퍼센트(알콜성 耽溺 1.3%, 習慣性 過飮 8.2%, 일과성 過飮 5.3%)

가 現在 習慣的으로 過飮하고 있고 42.4퍼센트(社交性 飮酒 15.3%, 斷酒者 27.1%)는 飮酒經驗이 있어 모두 57.2퍼센트의 學生이 飮酒를 해본 적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24)]

이를 性別로 나누면 男子는 20.4퍼센트가 女子는 4.1퍼센트가 習慣性 飮酒者였고 地域別로는 서울 및 기타 都市에 居住하는 靑少年들의 習慣性 飮酒率은 20.8퍼센트로서 農村의 12.3퍼센트에 비해 1.7倍의 높은 飮酒率을 보이고 있다. 더우기 模範學生 中의 2.9퍼센트, 問題學生의 13.4퍼센트가 過飮을 하고있어 問題學生이 模範學生에 비해 무려 4.6倍의 높은 飮酒率을 보였다.(表Ⅲ-13參照)

〈표Ⅲ-13〉 청소년의 음주실태

(조사대상자수 : 2,449명) (단위 : %)

	수	음주안함	단 주	사교성음주	일과성과음	습관성과음	알콜성탐닉
남 자	1,625	28.4	32.4	18.8	7.0	11.4	2.0
여 자	824	70.9	16.7	8.3	2.1	1.9	0.1
12-14세	585	73.8	21.4	3.8	0.3	0.2	0.5
15-17세	1,324	41.8	34.0	13.0	4.6	6.1	0.5
18-21세	540	11.1	16.5	33.3	12.6	22.2	4.3
도 시	1,278	35.0	24.7	19.5	7.0	11.9	1.9
농 촌	1,171	51.1	29.7	10.7	3.5	4.3	0.8
모범학생	172	54.7	32.0	10.5	1.2	1.2	0.6
일반학생	1,518	53.9	30.8	8.6	2.8	3.7	0.3
문제학생	187	41.2	30.5	15.0	7.0	3.7	2.7
전 체	2,449	42.7	27.1	15.3	5.3	8.2	1.3

자료 : 민병근외, "한국청소년의 음주빈도 및 음주양상에 관한 사회정신의학적연구" 「오늘의 청소년」제3집, 중앙대 한국청소년문제연구소, 1979.

24) 민병근, 이길홍, "한국청소년의 음주빈도 및 음주양상에 관한 사회, 정신의학적연구" 「오늘의 청소년」제3집, 중앙대 한국청소년문제연구소, 1979, pp.51-103.

青少年의 飮酒動機를 보면 20퍼센트가 苦悶을 잊기위해, 18.6퍼센트는 슬픔을 잊기위해 飮酒를 하고있어 38.6퍼센트가 心的 葛藤의 解消를 위해 飮酒하는 것으로 나타났다.(表Ⅲ－14參照)

〈표Ⅲ－14〉 청소년(12～21세) 음주동기

(조사대상자수 : 2,449) (단위 : %)

음주동기	전 체	남	여
고민을 잊기 위해	20.0	21.0	18.4
슬픔을 잊기 위해	18.6	18.4	19.0
쾌락추구를 위해	15.2	17.7	11.4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	6.6	8.4	3.8
남성다워지려고	7.2	9.7	3.2
어른 흉내내기 위해	1.0	1.2	0.8
모르겠음	31.3	23.6	43.4
계	100.0	100.0	100.0

자료 : 민병근외, "한국청소년의 음주빈도 및 음주양상에 관한 사회정신 의학적연구" 「오늘의 청소년」, 제3집, 중앙대 한국청소년문제연구소, 1979.

2) 吸煙

飮酒와 마찬가지로 吸煙도 青少年에게는 禁止되어 있다. 특히 中·高等學生에게는 吸煙이 絶對 禁止되어 있으며 校則違反行爲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男子高校生의 약 30퍼센트가 習慣的으로 吸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吸煙率은 增加 趨勢에 있음을 알 수 있다. (表Ⅲ－15參照)

〈표Ⅲ－15〉 남자고등학생의 흡연율

연 구 자	연구년도	조 사 대 상 자	흡 연 율	
			습관적흡연율	흡연경험율
1) 조상문	1973	고등학교 2학년 (지방 4 개교 서울 4 개교) 남학생 811 명	26.5 %	66.3 %
2) 전동휘	1981	일부 대전지역 고등학생	20.3 %	68.3 %
3) 박영임	1982	강릉시 총 6 개고교 재학생 2 학년 남자 692 명	30.5 %	71.3 %

자료 : 1) 조상문,"한국고등학생들의 흡연에 관한 조사연구"「공중보건잡지」, 제 10 권 제 1 호, 1973.
2) 전동휘, 이혜경,"일부대전지역 고등학생들의 흡연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대전간전 논문집」제 7 집, 1981, pp.205-211.
3) 박영임,"일부 지방도시 고등학생의 흡연실태 및 태도에 관한 조사",「중앙의학」43:3, 1982.

특히 最近에는 女大生들의 吸煙率도 높은 편인데 그 以前 資料가 없어 直接 比較하는 것은 不可能한 形便이나 1979 年의 調査[25]에서 674 名의 女大生 中 18.8 퍼센트가 吸煙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1980年의 調査[26]에서는 1,414 名의 女大生 中 23.1 퍼센트가 吸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女性의 吸煙率이 增加하는 것은 母性健康의 側面에서도 深刻한 問題가 될 것이다.

25) 김매자, 서문희, "여대생들의 흡연에 관한 조사" 「중앙의학」, 4:2, 1981.
26) 최의순, 박재순, "서울시내 여대생의 흡연실태조사" 「중앙의학」 38:5, 1980.

한편 高等學生들을 對象으로 吸煙을 처음 始作하는 時期를 調査한 硏究結果에 의하면 1973年의 調査에서는 中學校 在學時 吸煙을 始作한 學生이 51.9퍼센트로서 半을 넘었으나 1982年의 調査에서는 中學校 在學時 始作한 境遇가 줄어든 반면 國民學校 在學時 始作한 境遇가 22.5퍼센트나 되었다.(表Ⅲ－16參照)

〈표Ⅲ－16〉 고등학생의 최초 흡연시기

	조상문 1) 1973	박영임 2) 1982
국교 재학시	12.7 %	22.5 %
중학교 재학시	51.9 %	43.9 %
고등학교 재학시	35.4 %	32.1 %

자료 : 1) 조상문 : 전게서
2) 박영임 : 전게서

高等學生들의 吸煙動機를 調査한 結果에 의하면 好奇心 때문이라는 境遇가 가장 많았다.(表Ⅲ－17參照)

〈표Ⅲ－17〉 고등학생의 흡연동기

	고등학생대상		대학생대상	
	조상문 (1973)	박영임 (1982)	김경희 (1979) (남자대학생)	최의순 (1980) (여대생)
호 기 심	46.6 %	65.1 %	30.3 %	40.5 %
친구와 어울리기위해	27.0 %	17.8 %	42.4 %	13.5 %
어른이된 기분	9.9 %	1.2 %	*	10.1 %
기 타	16.5 %	15.9 %	9.2 %	8.5 %
정신적 갈등	*	*	18.1 %	27.3 %

자료 : 1) 조상문 : 전게서 2) 박영임 : 전게서
3) 김경희 : 〃 4) 최의순 : 〃
*해당항목 없음

또한 男高生들은 吸煙時의 氣分을 매우 좋다.(47.9 %), 부끄럽게 여긴다 (29.9 %), 자랑스럽다 (10.8 %) 의 順으로 應答하였다.[27)]

3) 青少年 自殺

自殺이나 自殺企圖는 自身의 生을 自暴自棄하는 行爲로서 男·女 老少를 莫論하고 어느 年齡層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특히 青少年期는 人生의 어느 時期보다도 自殺의 危險性이 큰 情緖的 激動期이기 때문에 青少年 自殺은 매우 重要한 意味를 갖고 있다.[28)]

自殺은 最近 우리나라 青少年의 死亡原因 中 4 位를 차지하고 있다. (表Ⅲ－6 參照) 青少年 自殺에 대한 민병근의 硏究[29)] 에 의하면 韓國青少年 學生의 19.7 퍼센트가 自殺衝動을 經驗하고 있으며 性別로 보면 男學生에서는 8.9 퍼센트, 女學生에서는 21.3 퍼센트로 女學生이 男學生보다 높은 自殺衝動率을 보이고 있다. 反面 勤勞青少年을 對象

27) 조상문, "한국 고등학생들의 흡연에 관한 조사연구"「공중보건잡지」 제 10권 제 1호, 1973. 회

28) Toolan, H: Suicide and Suicidal Attempt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962, 719-724.

29) 민병근, 이길홍, 김헌수, "한국청소년 학생의 자살충동 및 자살기도율에 관한 사회, 정신의학적연구," 「한국의 과학」, 11. 2. 1979.

으로한 함웅의 硏究[30]에서는 39.0퍼센트가 自殺衝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學生靑少年 보다 약 2倍 程度 높았으며 이런 結果는 勤勞靑少年들이 學業을 抛棄하고 就業해야만 되는 劣等意識 속에서 自暴自棄하는 傾向이 많음을 示唆한다고 보겠다. 한편 自殺企圖는 靑少年 學生의 8.9퍼센트(男學生 10.5%, 女學生 6.3%)가 經驗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勤勞靑少年의 境遇는 17.1퍼센트(男子 19.9%, 女子 15.0%)가 經驗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學生靑少年에 비해 훨씬 높은 率을 보여 주었다.(表Ⅲ-18參照)

〈표Ⅲ-18〉 청소년의 자살충동 및 자살기도율

연구자	연구년도	조 사 대 상	자살충동율		자살기도율
민병근	1979	중1~대1	전체	19.7%	8.9%
		(12~21세)	남	8.9%	10.5%
		학생 3,269명	여	21.3%	6.3%
함 웅	1980	근로청소년	전체	39.0%	17.1%
		(14~21세)	남	44.5%	19.9%
		633명	여	35.1%	15.0%

자료 : 민병근, 전게서
함 웅, 전게서

4) 靑少年 事故

事故는 韓國의 靑少年 死亡原因 中 第1位를 차지하고 있다.(표Ⅲ-6參照) 그러나 靑少年 事故의 內容을 具體的으로 提示하고 있는 資料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특히 事故內容의 分類基準이 標準化

30) 함 웅, "근로청소년의 자살성향과 산업재해와의 상관관계"「신경정신의학」 제19권, 1980. pp.348-356.

되어있지 못하고 편기되어 있어 利用하기가 不可能하였다. 다만 青少年의 事故에 대한 樣相을 엿볼 수 있는 資料로서 서울시 1個 綜合病院 應急室에 1973年 3月부터 1974年 2月까지 來院한 患者 總 6,131名 中 15～19才 層의 青少年 491名의 來院 理由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약 절반(49.5%)이 事故로 인해 應急室에 온 境遇로 나타났으며, 事故의 內容은 11.9퍼센트가 交通事故, 骨折이 10.3퍼센트, 自殺企圖가 9.1퍼센트 其他 事故가 45.3퍼센트 其他 損傷이 16.0퍼센트로 나타났다.[31] (表Ⅲ－19, Ⅲ－20 參照)

---

31) 오정미, "서울시내 1개 종합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실태조사" 「공중보건잡지」, 제 12권 제 2호, 1975.

〈표Ⅲ－19〉 연령별 응급실 내원환자의 질병분포(17분류에 의함)

(전체환자수 5,690명) (단위 : %)

	0-14	15-19	20-29	30-39	40-49	50+
Ⅰ.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21.4	7.3	7.0	7.1	7.4	5.4
Ⅱ. 신 생 물	1.1	0.4	1.4	3.1	6.3	6.3
Ⅲ. 내분비·영양및 대사의 질환과 면역장애	0.2	0.2	-	0.7	1.9	1.2
Ⅳ. 혈액 및 조혈기의 질환	0.3	1.0	0.8	0.1	0.6	0.8
Ⅴ. 정 신 장 애	0.6	3.5	11.6	4.5	2.9	1.2
Ⅵ. 신경계 및 감각기계 질환	11.1	6.9	7.1	2.2	3.2	1.6
Ⅶ. 순환기계 질환	3.0	0.8	8.1	5.2	14.2	25.2
Ⅷ. 호흡기계 질환	14.6	5.7	2.0	2.3	2.8	2.3
Ⅸ. 소화기계 질환	8.1	13.6	15.7	21.0	18.3	16.1
Ⅹ. 비뇨생식기계 질환	1.7	3.1	5.5	6.7	5.0	3.3
Ⅺ. 임신, 분만 및 산욕의 합병증	-	0.6	5.4	7.8	2.6	-
Ⅻ.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0.3	0.2	-	-	0.2	-
ⅩⅢ. 근 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1.4	0.6	1.1	0.4	1.1	10.7
ⅩⅣ. 선천성 이상	2.9	-	0.4	0.3	0.6	0.5
ⅩⅤ. 증상, 징후 및 불명확한 병태	7.8	8.4	7.7	9.1	10.7	8.4
ⅩⅦ. 손상 및 중독	25.4	49.5	41.7	29.3	22.1	2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환 자 수	1,498	491	1,128	897	646	1,030

자료 : 오정미, "서울시내 1개 종합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실태조사" 「공중보건잡지」 제12권 제2호, 1975

〈표Ⅲ－20〉 연령별 응급실 내원환자의 사고내용분포

(단위 : %)

	0-14	15-19	20-29	30-39	40-49	50+
교통사고	14.2	11.1	7.9	15.6	16.8	14.5
기타사고	15.8	45.3	41.8	33.5	29.4	45.8
자살기도	5.5	9.1	14.4	10.3	7.7	7.6
골 절	15.8	10.3	14.6	14.8	20.3	18.9
두뇌손상	4.5	3.7	2.1	3.4	1.4	1.8
화 상	16.3	4.1	4.0	2.3	2.8	-
화학물질로인한부작용	0.2	0.4	1.3	0.7	-	0.7
기타손상	27.6	16.0	13.8	19.4	21.7	1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환 자 수	380	243	471	263	143	275

자료 : 오정미, 전게서

5) 藥物 濫用

우리나라에서는 1975年에 習慣性 醫藥品 管理法을 公布하여 大麻草等 幻覺劑의 製造, 販賣, 使用을 嚴格히 規制하고 있다. 大麻草 禁止令이 내리기 以前인 1975年과 그 후의 1978年의 12～18才의 學生들을 對象으로 한 調査結果를 比較하면 1975年에 比해 1978年의 大麻草 吸煙率은 顯著히 減少했음을 알 수 있다.(表Ⅲ－21參照)

〈표Ⅲ－21〉 청소년의 대마초 흡연율

(단위 : %)

연구년도	조사대상	흡연자	중단자	안피움	무응답
1975[1]	12～18세청소년 학생 (6,110명)	1.0	4.6	94.4	－
1978[2]	12～18세학생 청소년 (2,643명)	0.1	2.0	96.9	1.0

자료 : 1) 민병근, "한국청소년의 대마초 흡연빈도"「한국청소년에 관한 사회정신의학적 연구」, 중앙대학교, 1976.
2) 민병근, "한국청소년의 대마초 흡연실태에 관한 종단적 연구"「한국의과학」 제12권 제3호, 1978.

그러나 非麻藥性 藥物, 특히 覺醒劑, 神經安靜劑, 睡眠劑 等을 濫用하는 現象은 점점 增加하고 있다.[32] 한편 1978年의 한 硏究[33]에 의하면 非行靑少年일수록 神經安靜劑 等의 藥物을 使用하는 境遇가 많고 非行靑少年의 39.3퍼센트, 一般靑少年의 21.0퍼센트가 藥物使用經驗을 가지며 또한 1981年의 硏究[34]에 의하면 非行靑少年 中 覺醒劑를 使用한 經驗이 있는 境遇가 31.0퍼센트, 神經安靜劑는 25.0퍼센트이고 특히 有機用의 신나 (thinner)나 接着劑인 본드를 吸入하는 率이 26.2퍼센트나 되었다.

32) 이정균, "습관성 약물중독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9 : 1970.
33) 변상호, 이태복, 이년수, "청소년의 습관성 약물등의 남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연보」 13:32-36, 1978.
34) 백명기, "비행청소년의 약물사용빈도 및 약물사용 양상에 관한 사회, 정신의학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20권 제2호, 1981.

우리나라에서는 過熱된 入試競爭 等으로 因해 잠쫓는 藥을 服用하는 境遇가 많은데 最近 서울 YMCA가 서울市內 男·女 高等學生 1,214名을 對象으로 調査한 바에 의하면 25퍼센트 程度가 잠을 쫓기위해 覺醒劑를 服用한 經驗이 있고 實際로 調査對象者의 11.5퍼센트(140名) 程度는 嘔吐, 不眠症, 頭痛 等의 副作用을 經驗한 것으로 나타났다.[35]

靑少年들의 藥物濫用을 막기 위해서는 醫藥品 廣告의 規制, 藥品管理의 强化 等의 對策이 必要하다고 보겠다.

---

35) 한국일보, 1985년 10월 3일, 8면

Ⅳ. 韓國 青少年 性問題의 背景

우리나라는 傳統的으로 儒敎思想에 根據한 性道德을 통해 性에 관하여 擧論하는 것을 타부시하였고 男女間의 自由로운 交際는 물론 서로 마주보는 것, 이야기하는 것조차 禁止하여 이를 어기는 것을 不道德하고 羞恥스러운 行爲로 認定해 왔다. 즉 性은 出産을 위한 道具일 뿐이었고 平素에는 不淨한 것으로 罪惡視되었다. 그러한 傾向은 "男女七歲不同席"이라는 말로 代表된다.

그러나 1960年代 以后의 急激한 産業化, 都市化 過程을 거치면서 일어난 國民生活 全般의 變化와 함께 性에 관한 意識, 態度, 規範도 크게 바뀌었다. 그와 같은 社會의 여러면의 變化와 함께 性觀念의 變化는 變化에 敏感한 青少年들에게는 더욱 큰 影響을 끼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章에서는 韓國 青少年들의 性問題의 背景을 把握하기 위해 青少年들의 身體的 成熟時期의 變化, 教育期間의 延長, 結婚年齡의 遲延, 異性接觸 機會의 不足, 性道德의 混亂, 매스콤의 影響, 勤勞青少年들의 問題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身體的 成熟時期의 變化

前보다 나아진 營養狀態로 인해 青少年들의 身體的 成熟年齡은 過去보다 훨씬 빨라지는 傾向이다. 表Ⅳ－1에서 보는바와 같이 1964年에서 1984年 사이의 6～17才의 青少年들의 키는 平均 6.6㎝, 體

重은 4.0 kg씩 增加했다.

〈표Ⅳ－1〉 20년간(1964～1984)체격평균성장율(6세～17세)

구 분		1984	1964	평균성장치	평균성장율(%)
키 (cm)	남	144.5	137.3	7.2	5.2
	여	141.4	135.2	6.2	4.6
	평 균	142.9	136.3	6.6	4.8
몸무게 (kg)	남	38.1	33.7	4.4	13.1
	여	36.9	33.3	3.6	10.8
	평 균	37.5	33.5	4.0	11.9
가슴둘레 (cm)	남	70.8	68.7	2.1	3.1
	여	69.8	67.7	2.1	3.1
	평 균	70.3	68.2	2.1	3.1
앉은키 (cm)	남	78.7	74.2	4.5	6.1
	여	77.6	73.9	3.7	5.0
	평 균	78.1	74.1	4.0	5.4

자료 :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85.

특히 性的 成熟의 重要한 基準이 되는 初經과 夢精年齡이 빨라졌다. 1960年代에만 해도 14才 5個月 前後이던 初經年齡이 1970年代에는 14才 程度로, 1980年代에는 13才 아래로 떨어졌다.(表Ⅳ－2參照)

〈표Ⅳ－2〉 초경연령의 변화(서울 중심 대도시 연구를 참고)

연 구 연 도	연 구 자	초경평균연령
1960-1961	김 주 성	14세 8개월
1965	서봉연, 전광문	14세 2개월
1971	김 길 자	14세
1979	민병근, 이길홍, 김홍수	14세
1982	김 미 화	12세 3개월

자료 : 김주성, "한국여성의 월경에 관한 조사연구"「아세아여성연구」제1집 숙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62.
서봉연, 전광문, "순결교육을 위한 기초조사"「중앙교육연구소 조사연구」제38집, 1965
김길자, "서울시내 여학생의 성적 성숙에 관한 일 연구"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민병근, 이길홍, 김홍수, "한국청소년기 여학생의 초경시기 및 초경시 정서적 반응에 관한 연구"「오늘의 청소년」제3집, 한국청소년문제연구소, 1979
김미화, "여학생의 초경에 관한 조사연구"「한국 보건교육학회지」 제1권 제11호, 1983.

夢精 年齡에 관한 硏究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個의 硏究結果를 比較할 때 약간 빨라졌다는 推測이 可能하다.(表Ⅳ－3參照)

〈표Ⅳ－3〉 몽정 연령의 변화(서울중심 대도시 연구)

연구연도	연 구 자	평균몽정연령
1964	이 혜 주 외1)	14세 4개월
1983	박 준 희 2)	14세 2개월

자료 : 1) 이혜주외, "한국남자중고등학생의 성적발달에 관한 조사", 이대 석사학위논문, 1964.
2) 박준희외,「중, 고교생을 위한 성교육」, 서울교육출판사 1983

특히 初經과 夢精은 思春期에의 進入과 同時에 나타나기보다는 思春期의 中間時期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우리나라 青少年의 思春期도 아울러 빨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Spermarch에 관한 研究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教育期間의 延長

最近 10年間의 教育人口의 推移를 살펴보면 다음 表Ⅳ-4와 같다.

1975年과 1984年 사이의 高等學校 登錄率은 86.3퍼센트 增加했고 中學校의 登錄率은 34.9퍼센트 增加했다. 같은 期間 中의 大學校 登錄率은 4.2倍 늘어났다.

〈표Ⅳ-4〉 연도별 학교 교육인구

(단위 : 명)

연 도	중 학 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초·교대
1975	2,026,823	1,123,017	222,856	12,291
1976	2,116,635	1,253,676	245,101	9,789
1977	2,195,770	1,350,600	268,549	8,017
1978	2,298,124	1,454,376	296,933	9,111
1979	2,394,620	1,565,355	356,134	9,997
1980	2,471,997	1,696,792	436,918	9,819
1981	2,573,945	1,823,039	580,607	10,476
1982	2,603,433	1,922,221	715,333	11,279
1983	2,672,307	2,013,046	833,189	12,012
1984	2,735,625	2,092,401	933,032	14,283

자료 :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85.

1984年의 12～24才 사이의 青少年 人口가 약 10,869,000名인 점을 勘案하면 약 53퍼센트가 現在 正規的 教育을 받고있는 人口라고 볼 수 있다. 그와 같이 正規的 教育期間이 延長되는 것은 産業化 過程에서 社會의 諸般 機能이 專門化되어 高度의 知識과 技能을 具備한 人力에 대한 需要가 높아진 것과 聯關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많은 父母들이 그들의 子女가 더 많은 教育을 받기를 바라는 높은 教育熱과도 聯關된다고 보겠다. 韓國日報와 한국 갤럽 研究所의 共同調査[36]에 의하면 1,025名의 父母 中 86.8퍼센트가 子女가 大學校 以上의 教育을 받기를 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보다 많은 青少年이 보다 오랫동안 學校教育을 받게되는 傾向은 青少年들이 成人役割을 準備하는 期間이 길어지고 있음을 意味한다고 보겠다.

3. 結婚年齡의 遲延

우리나라는 傳統的으로 早婚의 傾向이 뚜렷했다. 現在에도 法的으로 자유롭게 結婚할 수 있는 年齡이 男子 18才, 女子 16才로 規定되어 있으나 1979年 改正法에 의해 20才 미만이 結婚할 때는 父母의 承認이 반드시 必要하다고 明示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産業社會가 要求하는 높은 教育을 받고 經濟的으로도 自立할 수 있기 위해서는 結婚年齡이 늦춰질 수 밖에 없다. 表Ⅳ－5에서 보는 바와 같이 平均 結婚年齡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

36) 한국일보, 1985.

〈표Ⅳ－5〉 평균 결혼 연령

(단위 : 세)

지역	전국		도시		농촌	
연도＼성별	남	여	남	여	남	여
1955	24.5	20.4	25.5	21.5	24.3	20.1
1960	25.4	21.6	26.8	22.8	24.9	21.0
1966	26.7	22.8	27.7	24.0	26.1	22.0
1970	27.1	23.3	27.5	23.8	26.8	22.6
1975	27.4	23.6	27.6	24.2	27.1	22.9
1980	27.3	24.1	27.4	24.3	27.3	23.7

자료 : 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 1982. p.31.

4. 異性 接觸 機會의 不足

우리나라에서는 中·高等學校 時節에 男女가 따로 공부하는 男女別學制가 高等學校의 境遇의 약 $\frac{2}{3}$ 程度로 壓倒的이다.(表Ⅳ－6參照)

〈표Ⅳ－6〉 학교별 남녀공학 여부

학교분류	남자학교	여자학교	남녀공학	계
중 학 교	587(24.8)	543(22.9)	1,241(52.3)	2,371(100.0)
고 등 학 교	542(33.8)	518(32.4)	542(33.8)	0,602(100.0)
전문대학이상	5(1.2)	57(13.4)	362(85.3)	424(100.0)

자료 :「문교통계연보」, 1985.

「한국대학연감」, 창간호, 1982.

따라서 青少年들은 男女가 서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機會를 별로 가질 수 없고 그로 인해 想像에 의한 異性에 대한 好奇心이 커지게 되며 非正常的인 서클활동과 모임을 통해 異性과 만나게 되는 境遇가 많다.

그러나 教育的인 側面에서 볼 때 兩性의 자연스러운 接觸을 통한 關係의 學習은 단순히 性 때문이 아니라 人間關係를 익힌다는 意味에서도 꼭 必要한 過程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性的인 紊亂도 오히려 줄어든다[37] 고 한다.

5. 性道德觀의 混亂

오늘날의 青少年들은 性에 관한 올바른 道德觀이 定立되지 못한 채 新·舊 價値觀이 對立되는 사이에 放置되어 있다. 즉 女性의 純潔이나 貞節을 絶對視하던 傳統社會와는 달리 最近에는 西歐의 性開放의 風潮가 導入되어 既存의 價値觀이 흔들리면서 混亂을 빚고 있다.

그러나 우리 社會에서는 아직도 青少年의 性行爲를 무조건 禁止하는 것이 社會的 規範이 되고 있다. 그러한 傾向은 一般人들 뿐 아니라 政策立案者들과 行政家들에게도 支配的이다. 그러므로 비교적 西歐的인 自由와 性開放의 意識을 가진 青少年들에게 性問題가 發生될 경우 그 問題는 家族의 테두리 안에서 혹은 기껏해야 私的 保護機關의 테두리 안에서 解決되어야 한다.

---

37) 마경자, "한국 중학교육의 남녀공학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0, pp.33-34

특히 社會가 複雜해짐에 따라 家庭의 技能이 弱해지고 缺損家庭의 數도 增加하면서 靑少年들은 性問題에 관해 議論할 相對를 家族 안에서 가지기 힘들고, 問題解決에도 큰 도움을 받지 못하는 境遇가 많다. 더우기 性에 관한 意識도 一貫되어 있지 못하여 戀愛와 結婚을 別個로 여기면서도 配偶者의 結婚前 戀愛는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든지 男性의 境遇 自身의 婚前 性行爲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見解를 가지면서도 配偶者의 婚前 性經驗은 容恕하지 못하는 등의 二重的인 態度를 가지며 그와 같이 一貫되지 못한 價値觀 사이에서 靑少年들은 葛藤을 느끼기 쉽다.[38]

6. 매스콤의 影響

靑少年의 性問題를 理解하기 위해 重要視해야 할 部分은 現代社會의 環境이다. 1980年 現在 우리나라의 텔레비젼 普及率은 86.7퍼센트나 되고[39] 靑少年들이 텔레비젼을 視聽하는 比率과 時間은 表Ⅳ-7과 같다.

텔레비젼이 靑少年들에게 미친 影響에 關한 硏究結果들을 要約해 보면 첫째, 農村 어린이의 83.76퍼센트가 텔레비젼 主人公을 龜鑑이 되는 人物로 삼는 경향을 보이며 텔레비젼에서 본 場面을 模倣해본 적이 있는 경우도 男學生의 31퍼센트, 女學生의 16퍼센트가 되는 것

38) 조정숙, "고교생의 성교육 필요성에 관한 고찰",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39) 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 1981.

〈표Ⅳ－7〉 성·연령 계층별 텔레비젼시청율및 시청시간

(단위 : %) (시간 : 분)

		시청율			시청시간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여자	10～15	91.8	94.4	98.0	2:01	2:59	4:10
	16～19	79.3	83.6	93.1	1:28	2:16	3:07
	20～29	86.5	88.6	91.6	2:21	2:58	3:47
남자	10～15	95.0	96.6	98.5	2:12	3:26	4:34
	16～19	84.6	92.5	95.2	1:32	2:39	3:41
	20～29	92.7	93.3	95.3	2:12	2:54	3:41

출처 : 한국방송공사, 「국민생활시간조사」, 1983

으로 나타나 텔레비젼이 青少年에게 미치는 影響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40] 둘째, 텔레비젼을 通한 西歐文化의 露出程度와 西歐文化에 對한 情報量과는 正比例의 相關關係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41]

그러나 매스콤은 煽情的이며 猥褻스럽고 頹廢的인 內容을 反復하여 보여주고 들려줌으로써 뚜렷한 價値觀이 形成되지 못한 青少年들에게 整理되지 못하고 歪曲된 性知識뿐만 아니라 不健全한 性的 刺戟을 퍼

40) 이상희, "한국농촌국민학교 아동의 TV수용형태에 관한 연구"「성곡논총」, 1977.

41) 이강수, "아동과 텔레비젼의 관계에 대한 고찰"「신문학보」, 1975.

붓고 있어 심각한 結果를 초래하는 實情이다.[42]

그러므로 大部分의 青少年들이 性知識을 라디오, 영화, TV, 잡지, 신문 등을 포함한 매스콤을 통해 받아들이는 점을 勘案하면 매스콤에서의 感覺的인 性的 刺戟의 犯濫은 青少年들로 하여금 性에 대한 올바른 理解를 갖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至極히 生理的, 本能的인 次元에서만 性을 대하는 態度를 갖게 하기 쉽다.

7. 勤勞青少年들의 問題

急激한 産業化와 都市化 過程에서 農村 出身의 青少年 中 많은 數가 就業을 위하여 都市로 移動하는 現象이 두드러지고 있다. 1984年 12月 現在 經濟活動人口 中 14～24才 人口는 2,489千名으로 全體 經濟活動人口 28,122千名의 17.6퍼센트를 점하고 있다. 青少年 經濟活動人口는 1970年代에 비해 1980年代에는 적어지는 傾向인데 그 理由는 景氣沈滯와 就學率의 增加 때문으로 풀이된다.[40]

勤勞青少年들은 大部分 집을 떠나 大都市에서 宿食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고 있으며 異性交際를 통해 외로움을 달래기도 한다. 또한 그 正確한 統計가 나와있는 것은 없으나 勤勞青少年들 중에는 순전히 방값을 아끼기 위한 經濟的 理由로 同性 친구 뿐 아니라 異性 친구와도 같이 사는 境遇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은 全體的으로 住宅이 不足한 現象과 깊은 聯關을 가진다.

---

42) 윤상철, "방송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방송연구」, 1984.
40) 청소년대책위원회,「청소년백서」, 1985. p.235.

Ⅴ. 韓國 靑少年의 性과 關聯된 問題

이 章에서는 우리나라 靑少年의 性과 關聯된 問題를 分析하기 위해서 크게 靑少年의 異性交際에 對한 態度 및 經驗實態, 婚前性交에 對한 態度 및 經驗實態, 婚前 姙娠 및 出産實態, 人工姙娠中絶實態, 性的非行實態, 性病實態, 避姙使用實態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異性交際에 對한 態度와 經驗實態

韓國靑少年의 異性交際에 對한 態度를 中·高校生을 中心으로 살펴보면 調査地域에 따라 많은 差異를 나타내고 있으나 異性交際를 찬성하는 比率은 全般的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表Ⅴ－1參照)

實際로 靑少年의 異性交際 經驗比率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즉 1970年代에는 異性交際를 經驗한 學生 혹은 勤勞靑少年의 數가 調査對象者 全體의 半이 되지 않았으나 1980年代 以後에는 그 比率이 70～80퍼센트에 달하고 있다.(表Ⅴ－2參照)

서울 市 高等學生의 異性交際의 깊이를 調査한 한 硏究[41]에 의하면 調査對象者인 1,210名 中 약 30퍼센트가 손잡거나 키스하는 程度의 異性의 感情이 깊이 介入된 戀愛型의 交際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1) 조정숙, 전게서, pp.25-26.

〈표Ⅴ－1〉　고등학생의 이성교제 찬성비율

연 도	연구자	조사대상자	이성교제찬성비율
1971	강준상	전국 77개 남녀 중·고등 학교생 4,116명	남 83.5% 여 65.9%
1978	김선희	충북고등학교 학생 1,052명	남 86% 여 70%
1981	정성채	서울지방 여고생(고3) 290명	95.2%
1983	박말순	경남지역 농촌 고등학생 1,336명 (674:662)	75.2% 남 84.8% 여 65.7%

자료 : 강준상, "중·고교학생의 성에 대한 태도"「가족계획」, 대한가족계획협회, 1971, pp.35-46.

김선희, 이성문제의 유발원인에 관한 조사연구－충청북도내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충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정성채, 여고생들의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한 태도조사연구, 이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박말순, 고등학생의 성의식에 관한 연구, 고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표Ⅴ－2〉　이성교제　경험비율

연　도	연구자	조사대상자	이성교제경험비율
1970	강준상	전국 77개 남녀 중고등 학교생 4,116명	남 54.2% 여 43.6%
1975	구본석	서울시내 여자고등학교생 603명	43%
1975	이병태	전국 버스안내원 7,288명	45.9%
1978	김선희	충북 고등학교 학생 1,052명	43%
1981	조정숙	서울시 고등학생 1,210(610:600)	남 67.7% 여 74.0%
1984	홍문식 서문희	구로, 구미, 마산지역 근로여성 918명	82.8%

자료：강준상, "중·고교학생의 성에 대한 태도"「가족계획」, 대한가족계획협회, 1971. 여름호, pp.35-46.

구본석, 이성교제에 관한 조사연구－서울시내 여고생을 중심으로－, 고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5.

이병태,「자동차 여성근로자 연구－안내원의 실태조사와 분석－」전국자동차노동조합, 1975.

김선희, 이성문제의 유발요인에 관한 조사연구－충청북도내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1978.

조정숙, 고교생의 성교육 필요성에 관한 고찰,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홍문식·서문희,「미혼근로여성의 인구 및 성에 대한 지식, 태도 조사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4.

2. 婚前性交에 對한 態度와 經驗實態

婚前性交에 對한 우리나라 靑少年들의 態度를 알아보기 위해 婚前純潔에 對한 支持比率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女高生을 對象으로 純潔에 대한 支持率을 調査한 두 硏究를 比較해 보면 1976年에 比해 1981年의 支持率은 多少 낮아졌으나 여전히 81.3퍼센트라는 높은 比率을 나타내고 있다.(表Ⅴ-3參照)

〈표Ⅴ-3〉 혼전성교에 대한 태도(여고생의 순결에 대한 지지비율)

연 도	연구자	조 사 대 상 자	지지비율
1976	오 옥 자	광주시내 여고생 300명	95%
1981	정 성 채	서울·지방여고생 290명	81.3%

자료: 오옥자, 성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정성채, 전게서.

特히 서울시 男子 高等學校 610名 中 83.4퍼센트가 女性은 純潔을 지켜야 한다고 反應하였는데[42] 反해 忠北의 男子 高等學生 1,052名 中 男性의 婚前 性關係에 대해 絶對로 안된다는 對答을 한 경우는 27퍼센트 뿐이며 나머지 73퍼센트는 結婚할 사이면 괜찮다, 사랑하는 關係면 괜찮다, 서로 理解하면 괜찮다는 反應을 보여[43] 女性의 純潔은 重要視하면서도 男性의 純潔은 重要視하지 않는 風潮를

42) 조정숙, 전게서, p.31.
43) 김선희, 전게서

反映하고 있어 興味롭다.

한편 未婚勤勞女性의 婚前性交에 對한 態度도 1975年과 1984年의 調査結果 사이에 큰 變化가 없다.(表Ⅴ－4參照)

〈표Ⅴ－4〉 근로여성의 혼전성교에 대한 태도 백분율분석비교

태 도	1975 1)	1984 2)
절대로 안된다	56.8 %	57.6 %
결혼이 약속되었으면 괜찮다	12.8 %	16.9 %
애정이 있으면 괜찮다	29.7 %	17.7 %
기 타	0.7 %	7.9 %
전 체(N)	100.0 (7,288)	100.0 (917)

자료 : 1) 이병태, 「자동차여성근로자연구」, 1975.
2) 홍문식, 서문희, 「미혼근로여성의 인구 및 성에 대한 지식·태도조사 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4.

그러나 青少年들의 婚前純潔에 대한 態度가 保守的임에도 불구하고 實際의 性交經驗率은 增加하는 趨勢임을 짐작할 수 있다.(表Ⅴ－5, Ⅴ－6參照)

〈표Ⅴ－5〉 남자고등학생의 성교경험율

연 도	연구자	조 사 대 상 자	성교경험율
1971	강준상	전국 77개 남자중고등학생 2,154명	18.5 %
1981	조정숙	서울시 남고생 610명	27.7 %

자료 : 강준상, 전게서
조정숙, 전게서

〈표Ⅴ－6〉　여고생의 성교경험율

연 도	연 구 자	조 사 대 상 자	성교경험율
1965	서봉연, 전광문	여고생 4,604명	3.6 %
1975	구 본 석	서울시 여고생 603명	6.2 %
1981	조 정 숙	서울시 여고생 600명	14.5 %

자료 : 서봉연, 전광문, "순결교육을 위한 기초조사"「중앙의학연구소 조사연구」제 38 집, 1965.
구본석, 전게서
조정숙, 전게서

즉 男子高等學生의 性交經驗率은 1971年에는 18.5퍼센트였으나 1981年에는 27.7퍼센트로 增加했고 女子高等學生의 經驗率은 男子高等學生보다는 낮으나 그 增加幅은 훨씬 크다는 점에서 注目될 만하다.

위와 같은 性交經驗率은 1973年에 16～20歲 靑少年을 對象으로 한 Kinsey의 硏究에서 나타난 性交經驗率 61.5퍼센트(男子 85.0 %, 女子 38.0 %)보다는 훨씬 낮은 것이나 그 增加幅이 急激히 커지는 데서 오는 副作用을 고려할 때 그 重要性은 强調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韓國靑少年問題硏究所의 硏究結果에 의하면 1,263名 中 76.1퍼센트의 靑少年들이 16歲까지는 自慰行爲를 經驗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最初의 自慰行爲 經驗 平均年齡은 男子의 경우 15歲, 女子의 경우 15.3歲로 나타났다.(表Ⅴ－7參照)

〈표Ⅴ－7〉 최초의 자위행위 경험시기

연 령	수	%
11살 미만	46	3.6
11～12	90	7.1
13～14	304	24.1
15～16	522	41.4
17～18	258	20.4
19살 이상	48	3.4
계	1,263	

자료 : Ok-Ryun Moon, "An analysis on adolescent fertility management in the ROK," 「보건학논집」, 제31호, 1981. pp.59-66. 에서 재인용.

한편 서울市 高等學生들을 對象으로 自慰行爲 經驗 後의 心理狀態를 調査한 結果에 의하면 表Ⅴ－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분이 좋다"는 경우는 18.0퍼센트에 불과하고 80퍼센트 정도는 虛脫感에 빠지거나 罪意識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표Ⅴ－8〉 자위경험후의 심리상태

심리상태	남학생 N＝430	여학생 N＝138	합 계 N＝568
죄의식을 느낀다	18.1	38.4	23.1
허탈감에 빠진다	56.7	53.6	57.7
기분이 좋아진다	21.6	6.5	18.0
기분이 나쁘다	－	2.9	0.7
잘 모르겠다	12.3	23.2	15.0
무 응 답	5.8	4.3	5.5

자료 : 조정숙, 전게서, p.20.

3. 婚前姙娠 및 出産實態

婚前性交를 바람직하지 않게 여기는 社會的 雰圍氣에도 불구하고 婚前姙娠은 계속 存在해왔다. 表Ⅴ－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0年 以前에 結婚한 婦人의 경우 3.2퍼센트만이 婚前에 姙娠하였으나 1974年과 1976年 사이에 結婚한 婦人의 경우에는 26.0퍼센트가 婚前姙娠하였다.

〈表Ⅴ－9〉 결혼코호트별 혼전임신율의 변화추세

결혼연도	조사대상자수	혼전임신율(%)	혼전출산율(%)	혼전출산／혼전임신율(%)
전 체	5,996	14.4	3.3	22.6
1950년 이전	727	3.2	1.2	39.1
1950－1954	751	5.3	2.3	42.5
1955－1959	884	9.0	2.4	26.3
1960－1961	335	10.1	2.1	20.6
1962－1963	378	13.5	3.7	27.5
1964－1965	389	15.7	3.3	21.3
1966－1967	410	19.5	4.9	25.0
1968－1969	447	21.7	3.6	16.5
1970－1971	503	21.9	3.2	14.5
1972－1973	538	23.2	4.5	19.2
1974－1976	634	26.0	6.2	23.6

자료：이시백, 박병태, 최 순, 혼전임신경험부인의 출산력수준고찰, 「가족계획논집」, 제5호, 1978.

또한 위의 研究結果에 의하면 婚前姙娠의 經驗은 25歲 未滿의 都市에서 살며 高等學校 卒業 以上의 學歷을 가지며 就業經歷이 있는 女性에게 많았다.

青少年 出産實態에 關한 最近의 研究[44]에 의하면 青少年 姙娠婦 中에서도 10代 姙娠婦는 他年齡에 比해 産前管理를 소홀히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低體重兒를 出産할 可能性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教育水準이 낮고 非熟練勞動職에 從事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正式 結婚을 하지 않은 狀態에서 同居하는 頻度가 높았고 아기의 養育을 抛棄하는 경향이 强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青少年 出産은 綜合病院보다는 母子보건센타나 助産所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바, 1980年 2月부터 12月까지 全國의 9個 綜合病院 및 4個 母子保健센타, 7個 助産所의 産母를 對象으로 한 研究에 의하면 綜合病院의 경우는 全體 出産 中 24歲까지의 青少年 出産이 18.77퍼센트였고 이들을 結婚狀態別로 分類했을 때에도 未婚의 産母일수록 助産所에서 出産하는 比率이 높았다.(表Ⅴ－10, Ⅴ－11參照)

---

44) 김한경외,「서울시 청소년 출산에 관한 의학적, 사회심리적 조사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表Ⅴ－10〉 종합병원과 조산소의 산모의 연령별 비교

연 령	종 합 병 원	조 산 소
15 ～ 19	0.3	0.7
20 ～ 24	18.47	30.8
25 ～ 29	57.57	52.6
30 ～ 34	18.54	13.3
35 ～ 39	4.10	2.2
40＋	1.02	0.4
계	100.0 (N＝14,152)	100.0 (N＝9,746)
〈평균연령〉	28.05	26.3

자료 : 임종권, 홍성렬, 이계용, 「모성건강관리평가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1.

〈표Ⅴ－11〉 종합병원과 조산소 산모의 결혼상태별 비교

결 혼 상 태	종 합 병 원	조 산 소
미 혼	1.57	2.6
기 혼	94.88	97.2
기 타	3.54	0.2
계	100.0 (N＝14,033)	100.0 (N＝9,692)
미 상	137	102

자료 : 임종권외, 전게서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青少年 出産 中 많은 比率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婚前姙娠에 對한 正確한 統計資料를 구할 수 없고 단지 入養機關 및 相談所를 通하여 未婚母의 數를 間接的으로 把握할 수 있을 뿐이다. 國內의 4個 入養機關 및 婦女兒童相談所를 通한 未婚母 相談實績에 의하면 未婚母數는 1973年의 160名에 比해 1980年에는 3,146名, 1983年에는 9,518名으로 急增하는 趨勢이다.(表Ⅴ-12參照)

〈표Ⅴ-12〉 미혼모 상담건수 (단위:명)

연 도	1973	1978	1980	1981	1982	1983
상담인원	160	3,025	3,146	5,069	7,475	9,518

자료:한국여성개발원, 「미혼모실태에 관한 연구」, 1984.

特히 大韓社會福祉會 慶北支部에서 1977年 1月부터 1978年 12月까지 2年동안 相談한 215名의 未婚母 中 10代가 37.2퍼센트나 되었으며 그 中에서도 17歲 以下의 未婚母는 약 29퍼센트나 되었다.[45]

最近 女性開發院에서 實施한 1,406名의 未婚母 實態에 關한 研究[46]에 의하면 敎育程度가 낮을수록, 缺損家族일수록, 家族所得水準이 낮을수록, 父母의 性에 對한 態度가 閉鎖的일수록, 親舊의 性에 對한 態

45) 유상렬, "10대 미혼모와 청소년문제" 「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79. 가을호.

46) 한국여성개발원,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 1984.

度가 開放的일수록, 自我正體感의 安定性이 낮을수록 未婚母의 比率은 높아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 未婚母들은 年齡이 낮을수록 瞬間的 衝動이나 相對方의 說得과 强要, 혹은 好奇心에 의해 性關係를 가지는 性向이 높으며 避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約 34.1%의 未婚母가 避姙에 對해 잘 모르고 있거나 두사람의 關係가 一時的이어서 衝動的이고 豫想치 못한 狀況에서 性關係를 가지므로 미처 避姙을 使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實際로 調査 當時 未婚父와 同居하는 未婚母는 9.1 퍼센트 뿐이었고 이미 헤어진 경우가 67.2 퍼센트나 되었다.(表 V - 13 參照)

〈표 V - 13 〉 현재 미혼부와의 상태

상 태	인원수 (명)	비 율 %
동거하고 있다	117	9.1
자주 왕래가 있다	88	6.9
가끔 왕래가 있다	193	15.1
헤어졌다	860	67.2
사망했다	21	1.6
무응답	1	0.1
계	1,280	100.0

자료 : 한국여성개발원, 전게서

青少年, 그 中에서도 10代의 出産은 生理的으로 準備가 덜 된 狀態에서 急激한 肉體的 變化를 감당해야 한다는 點에서 醫學的으로 많은 危險要因을 지니며 特히 婚前姙娠일 경우 心理的인 갈등의 問題도 심각하다. 또한 그들이 낳은 아이들의 入養問題도 兒童福祉의 次

元에서 社會問題化될 素地가 크다고 하겠다. 每年 國內에서 入養되는 아기의 數는 表Ⅴ－14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그 外에 國外로 入養되는 아기의 數도 매우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표Ⅴ－14〉 연도별 가정입양사업 추진실적

연 도	1979	1980	1981	1982	1983
인원(명)	3,660	3,657	3,267	3,292	3,004

자료 : 보건사회부, 「청소년백서」, 1984, p.396에서 재인용.

4. 人工姙娠中絶實態

1971年 以來 間歇的으로 實施된 家族計劃實態調査를 보면 有配偶可姙女性의 人工姙娠中絶 經驗率은 每年 增加하는 趨勢를 보이고 있다.(表Ⅴ－15參照)

〈표Ⅴ－15〉 유배우부인(20-44세)의 연도별 임신중절경험율

(단위 : %)

연 령	1971 1)	1974 2)	1976 3)	1978 4)	1983 5)
20 ～ 24	11	12	16	19	19
25 ～ 29	18	24	27	36	39
30 ～ 34	30	35	46	54	55
35 ～ 39	38	41	50	62	64
40 ～ 44	33	37	45	61	66
전 체	26	32	39	49	50

자료 : 1)문현상외, "출산력과 가족계획", 「1971년 출산력 및 인공임신중절조사 중간보고」 1972, p.83.
2)경제기획원·가족계획연구원, 「1974년 한국출산력조사」 1977, p.136.
3)박병태외, 「1976년 전국출산력및 가족계획평가조사」 1978, p.145.
4)변종화·고갑석, 「1978년 가족계획및 출산력실태조사」 1979. p.510.
5)임종권외, "한국의 인공임신중절실태 고찰", 「인구보건논집」제4권, 제2호, 1984.

위와 같은 有配偶婦人 以外의 未婚女性에 對한 人工姙娠中絶實態는 아직까지 잘 파악되지 않은 狀態이다. 그러나 1979年 3月부터 7月에 걸쳐 中都市의 22個 病·醫院에서 人工姙娠中絶手術을 받은 總 3,434名의 女性을 對象으로 한 硏究에 의하면 全 施術者의 23.7퍼센트가 24歲 以下의 女性이었으며 未婚女性도 27.8퍼센트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表Ⅴ－16, Ⅴ－17參照)

〈표Ⅴ－16〉 인공임신중절수용자의 연령분포

연 령	비 율
19살 이하	0.9
20 ～ 24	22.8
25 ～ 29	23.3
30 ～ 34	21.9
35 ～ 39	15.5
40 ～ 44	12.7
45 ～ 49	2.9
계	100.0

(N＝3,428)

자료 : 임종권, 최부옥, 「인공임신중절실태에 관한 연구」, 가족계획연구원, 1979. p.10.

〈표Ⅴ－17〉 인공임신중절 수용자의 결혼상태 백분율

결혼상태	수	백분율
유배우	2,363	68.8
미 혼	954	27.8
기 타	5	0.1
미 상	112	3.3
계	3,434	100.0

자료 : 임종권외, 전게서

또한 人工姙娠中絶 施術供給者를 對象으로 한 硏究[47]에 의하면 人工姙娠中絶手術을 받은 1,000名의 女性 中 10代가 33名이고 또 1,000名 中 出産의 經驗이 없는 未産婦도 466名이나 되었다. 同 硏究에서는 1978年度 서울市 居住 未婚女性의 人工姙娠中絶數를 약 20萬件으로 推定하고 있고 全 人工姙娠中絶의 約 $\frac{1}{3}$ 내지 $\frac{1}{4}$을 婚前人工姙娠中絶로 推定하고 있어 未婚女性의 人工姙娠中絶 問題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5. 性的 非行實態

우리나라에서 少年非行은 刑罰法令에 抵觸되는 行爲를 하였거나 特別法 또는 環境에 비추어 將來 刑罰法令에 저촉되는 行爲를 할 憂慮가 있는 12歲 以上 20歲 未滿의 犯罪少年, 觸法少年, 虞犯少年의 非行을 말하며 少年警察의 輔導對象에는 不良行爲 少年과 要保護少年도 包含된다.

最近의 靑少年 非行 推移를 보면 靑少年 非行은 量的으로 增加하고 있으며 質的으로 組織化, 凶惡化, 暴力化되고 있다.[48]

靑少年 犯罪者는 治安本部 統計에 의하면 1974年에는 49,522名이었으나 1983年에는 97,124名으로서 약 10年間 96.1퍼센트의 增加率을 나타내고 있다. 犯罪 類型을 보면 暴行이 가장 많고, 强姦이

47) 홍성봉, "서울시 일원의 인공유산의 최근경향," 「대한산부인과학회지」, 제 22권 제 9호, 1979, pp.795-803.
48) 청소년대책위원회, 「청소년백서」, 1984.

2,889名으로서 3位를 차지하고 있으며, 强姦의 境遇 74年의 724名에 比해 299.0퍼센트나 增加한 것은 매우 注目하여야 할 現象이다.(表Ⅴ-18參照)

〈표Ⅴ-18〉 소년범죄 유형별 상황

(단위 : 명)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계	49,522	59,046	66,433	65,521	60,365	59,975	65,459	69,549	86,347	97,124
살인	63	85	39	68	55	67	75	64	81	95
강도	864	1,055	987	834	741	870	1,695	1,779	1,740	2,109
강간	724	858	952	1,204	1,129	1,291	1,580	2,220	2,617	2,889
방화	38	52	42	34	40	37	22	44	43	56
폭행	18,599	26,830	27,340	30,819	27,773	29,794	30,390	29,048	38,181	41,872
절도	21,767	21,120	26,477	22,228	18,631	15,570	20,614	25,700	32,254	34,024
상해	786	917	899	1,006	960	856	892	859	1,160	711
공갈	195	213	252	255	227	203	248	262	342	349
협박	20	28	39	19	12	22	13	30	29	25
횡령	351	488	459	385	403	291	245	302	400	545
도박	144	193	291	264	184	144	128	142	110	91
장물	895	774	797	564	470	356	431	571	682	1,058
사기	483	553	430	380	338	351	360	369	470	621
기타	4,593	5,880	7,439	7,461	9,402	10,123	8,266	8,159	8,238	12,679

자료 : 청소년대책위원회, 「청소년백서」, 1984.

한편 表에 提示된 바와 같이 警察官署에 發見 敎導된 不良行爲 少年의 趨勢를 보면 1979年 부터 1983年 中에서 不良行爲 靑少年이 가장 많았던 해가 1980年의 258,067名과 1983年의 282,604名이

었다. 그러나 이러한 數値는 警察의 團束活動 與否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不良行爲少年의 實際 數値와는 一致하지 않는다.

警察에 의해 團束된 不良行爲 少年의 類型과 그 構成比率을 보면 1983年度의 境遇 吸煙少年이 24.4퍼센트, 飮酒少年이 19퍼센트, 싸움과 不良交友와의 交際로 團束된 少年은 각각 12퍼센트와 1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幻覺物質 所持行爲가 0.1퍼센트, 凶器所持는 0.2퍼센트, 男女 混宿行爲는 0.4퍼센트로 나타났다. 한편 團束된 不良行爲 少年의 處理內容을 보면 立件이 약 4～5퍼센트이며 대부분(65-80%)의 境遇 訓放措置된 것으로 나타났다.(表Ⅴ-19參照)

〈표Ⅴ-19〉 풍기단속 및 처리상황

(단위 : %)

연도	계	단속									
		유흥장 출입	음주	흡연	싸움	불량 교우	남녀 혼숙	흉기 소지	불량집 단가입	환각물 질소지	기타
1979	207,767	3.2	20.6	18.4	7.1	9.4	1.5	0.7	0.6	0.1	38.4
1980	258,067	1.9	16.4	15.5	10.2	8.5	0.4	1.2	0.4	0.2	45.3
1981	217,373	1.6	17.9	20.2	12.1	10.0	0.4	0.9	0.2	0.2	36.5
1982	255,345	1.8	19.5	22.7	12.4	9.6	0.5	0.8	0.2	0.1	32.2
1983	282,604	1.7	19.0	24.5	12.0	10.5	0.4	0.7	0.2	0.1	29.2

연도	계	처리			
		입건	즉심	통보	훈방
1979	207,767	2.0	16.3	17.1	64.6
1980	258,067	4.5	16.9	12.0	66.7
1981	217,373	4.7	13.3	11.8	70.2
1982	255,345	4.6	10.7	13.4	71.3
1983	282,604	4.3	7.2	17.7	81.4

자료 : 청소년대책위원회, 「청소년백서」, 1984.

青少年의 强姦의 推移를 治安本部와 大檢察廳 資料에 의해 살펴보면 表Ⅴ－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마다 急激한 增加 趨勢를 보이고 있다.

〈표Ⅴ－20〉 소년범죄 중 강간의 연도별 추이

(단위 : 명)

연 도	치안본부 자료	대검찰청 자료
1974	724	
1975	858	
1976	952	
1977	1,204	
1978	1,129	
1979	1,291	2,093
1980	1,580	2,278
1981	2,220	3,152
1982	2,617	3,642
1983	2,889	3,360

자료 : 청소년대책위원회, 「청소년백서」, 1984.

또한 警察에 의해 斷續된 混宿青少年 數도 1980年 以來 每年 1,000名을 넘고 있다.(表Ⅴ－21參照)

〈표Ⅴ－21〉 연도별 단속된 혼숙청소년 수

(단위 : 명)

연 도	단속된 혼숙청소년
1980	1,146
1981	795
1982	1,366
1983	1,147
1984	1,253

자료 : 청소년대책위원회, 「청소년백서」, 1984.

한편 學生青少年의 硏究[49]에서 一般學生이나 模範學生에 比해 問題學生들이 더 높은 性的 關心을 보인다는 것이 나타났고 또 다른 硏究[50]에서는 問題學生보다는 少年院에 收容中인 非行青少年들의 性的 關心度가 더 높다는 점이 밝혀졌다. 즉 問題學生일수록, 非行青少年일수록 性的 關心度가 높다는 것이 나타나 青少年 非行과 性的 關心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6. 性病實態

우리나라는 國家的 次元에서 性病을 管理하고 있으나 그 對象은 主로 性病感染의 憂慮가 있는 對象, 즉 特殊業態婦(外國人 相對), 倫落女性(內國人 相對), 接客婦, 댄서 等에 局限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國家 次元의 性病管理內容은 이들로 하여금 管轄 保健所에 登錄하는 것을 義務化하고 定期的인 檢診을 받도록 하며 落檢者(保菌者)는 完治時까지 無料로 治療를 받도록 하는 일이다. 이들을 위한 診療機關으로서는 公共診療機關인 性病管理所, 性病診療所, 保健所가 있으며 一般診療機關은 代用性病診療所, 醫療保護指定 病·醫院 等이 있다.

그러나 一般 患者에게는 政府의 管理對策이 直接的으로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羞恥心 때문에 떳떳하게 治療받지 못하고 藥局

49) 이수일, "한국청소년의 성의식에 관한 사회·정신의학적 연구", 「오늘의 청소년」, 제 2집, 중앙대 영신아카데미연구원, 한국청소년문제연구소, 1978, pp.155-193.
50) 김규환, 김헌수, 이길홍, 민병근, "비행청소년의 성관심도에 관한 조사", 「오늘의 청소년」, 제 6집, 1982, pp.63-74.

에서 抗生劑를 購入하여 自家治療함으로써 性病에 對한 耐性만 기르는 경향이 짙어 問題가 되고 있다.

15-24歲의 靑少年의 性病實態는 醫療保險統計年報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全體 性病患者 中 約 18퍼센트(男子 15.7%, 女子 15.2%)가 靑少年이며 1980年 以來 每年 增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Ⅴ-22參照)

〈표Ⅴ-22〉 연령별, 계층별, 연도별, 성별 치료환자실태

(단위 : %)

연령계층	'83		'82		'81		'80		計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0	1.8	5.4	6.3	9.8	14.1	10.3	1.5	2.2	3.8	6.5
1-4	3.4	8.9	7.2	13.1	17.8	17.3	19.4	20.3	7.8	14.0
5-14	2.4	6.7	5.4	9.8	13.1	11.2	13.9	14.6	5.7	10.1
15-24	17.8	18.2	15.7	15.2	8.8	12.3	10.5	12.8	15.5	15.2
25-34	46.0	32.9	38.3	26.2	17.8	22.0	30.6	24.2	39.7	27.4
35-44	17.0	13.6	15.4	11.8	14.5	12.2	14.7	14.1	16.1	13.0
45-54	8.2	8.5	8.2	8.2	8.9	7.9	6.5	6.2	8.0	7.8
55-64	2.7	3.6	2.5	3.5	3.3	3.7	2.0	3.3	2.5	3.5
65+	0.7	2.2	1.0	2.4	1.7	1.1	0.9	2.3	0.9	2.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9,415)	(2,686)	(4,379)	(2,019)	(1,353)	(1,147)	(2,707)	(1,912)	(17,854)	(7,764)

N : 환자실인원

자료 : 의료보험 관리공단, 「통계연보」 1980. 1981. 1982. 1983.

한편 醫療保險聯合會의 統計資料도 비슷한 樣相을 보이고 있어 1983年 現在의 靑少年 性病受診率은 全體對象者의 約 23%로 나타났다. (表Ⅴ-23參照)

〈표Ⅴ－23〉 연령계층별 연도별 치료환자 실태

(단위 : %)

연령계층	'83	'82	'81	'80	計
0 세	2.5	3.8	4.5	3.3	2.9
1 － 4	3.7	6.9	17.7	10.9	5.4
5 － 9	1.4	2.3	6.4	5.4	2.1
10 － 14	0.6	1.0	3.0	3.3	0.9
15 － 19	3.8	3.0	4.3	4.6	3.7
20 － 24	17.9	15.1	12.8	14.8	16.9
25 － 29	35.0	33.1	19.4	21.4	33.1
30 － 34	15.6	16.1	11.4	13.8	15.4
35 － 39	8.5	8.0	6.3	6.6	8.2
40 － 44	5.0	5.2	4.8	5.4	5.1
45 － 49	2.7	2.2	2.7	3.4	2.6
50 － 54	1.4	1.3	2.4	2.5	1.5
55 － 59	0.8	0.9	1.6	2.1	0.9
60 － 64	0.5	0.4	1.5	1.3	0.6
65 － 69	0.3	0.4	0.5	0.7	0.4
70＋	0.3	0.3	0.7	0.5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N)	(39,193)	(11,266)	(3,129)	(2,472)	(56,060)

N ; 환자실인원

자료 : 의료보험 연합회, 「통계연보」 1980. 1981. 1982. 1983.

주 : 성병이 의료보험 급여대상에 포함된 것은 1982. 6. 1. 부터임.

7. 避姙使用實態

家族計劃研究院에서 實施한 1978年의 出産力과 家族計劃 實態調査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旣婚女性들의 경우 첫번째의 出産 以前에 避姙하는 比率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表Ⅴ-24參照)

〈표Ⅴ-24〉 기혼여성의 피임사용시기

(단위 : %)

피 임 사 용 시 기	도시 %	농촌 %	전국 %
첫번째 출산전	6	4	5
첫번째와 두번째 출산의 사이	21	14	18
두번째와 세번째 〃	29	17	24
세번째 출산후	44	65	53
계	100	100	100

자료 : 변종화, 고갑석, 「1978 출산력과 가족계획 실태조사」, 가족계획연구원, 1979.

13 ~ 24歲의 産母를 對象으로 避姙使用率을 調査한 結果는 表Ⅴ-25와 같다.

〈표Ⅴ-25〉 13 ~ 24세 산모의 피임사용율

연 구 자	연구시기	조 사 대 상	피임사용율
김한경 외	1980-1982	서울시 13-19세산모 310명	7.7 %
〃	〃	서울시 20-24세산모 310명	15.2 %

자료 : 김한경외, 「서울시 청소년 출산에 관한 의학적 및 사회심리적 조사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위의 研究結果에 의하면 10代 産母의 避姙使用率은 教育水準과 거의 無關하였고 20～24歲의 産母의 경우에는 中·高等學校卒業 以上의 産母가 國民學校 卒業 以下의 産母보다 약간 높은 避姙使用率을 보였을 뿐이다. 또한 子女出産을 願했던 産母일수록 避姙使用率이 높은 反面 子女出産을 願하지 않았던 産母의 避姙使用率이 極히 낮았던 點은 注目할 만하다.

한편 1,280名의 未婚母들을 對象으로 한 研究[51]에 의하면 未婚母들은 避姙하지 않은 理由로서 34.1%가 피임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反面 아기를 갖기 위해서인 경우는 13.4퍼센트에 불과했다.

그와 같은 結果로 미루어볼 때 많은 青少年들이 避姙에 對한 知識의 不足, 혹은 準備不足으로 避姙을 하지 못하는 實情임을 알 수 있다. 實際로 서울市 高等學生들의 避姙方法에 關한 知識程度를 살펴보면 다음 表Ⅴ－26와 같다.

〈표Ⅴ－26〉 고등학생들의 피임방법에 관한 지식정도

연구자	연구시기	조사대상	피임방법	
			안다	모른다
조정숙	1981	남고생 610명	66명 (10.8%)	544명 (89.2%)
〃	〃	여고생 600명	47명 (7.8%)	553명 (92.2%)

자료 : 조정숙, (1981), 전게서

51) 한국여성개발원,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 1984.

즉 高等學生 中 避姙方法에 對해 알고 있는 경우는 10% 內外로서 姙娠, 出産, 性病 等에 關한 知識程度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特히 女學生의 避姙知識의 程度가 男學生보다 낮다는 것은 注目할만한 사실이다.

한편 未婚勤勞女性과 一般 未婚女性의 避姙方法에 關한 知悉率을 比較한 資料에 의하면 1979年의 一般 未婚女性 調査에 比해 1984年의 勤勞女性과 未婚母의 調査에서는 避姙方法 中 殺精劑, 月經週期法 콘돔에 對한 知悉程度는 비교적 높아진 反面에 子宮內 裝置, 卵管·精管手術과 같은 永久的, 反永久的 避姙方法에 對한 知悉率은 오히려 낮아졌다.(表Ⅴ-27參照)

〈표Ⅴ-27〉 세집단의 피임방법에 대한 지실율 비교

피 임 방 법	미혼여성 N=947	미혼근로여성 N=918	미 혼 모 N=1,406
먹는 피임약	50.0	42.5	45.0
자궁내장치	23.1	14.9	11.9
난관수술	26.3	13.9	9.6
살 정 제	14.5	25.1	23.9
월경주기법	11.8	23.1	24.3
콘 돔	14.9	37.5	28.5
정관수술	21.3	13.7	9.8
질외사정법	1.9	2.3	항목없음
생리조절법	항목없음	항목없음	9.8

자료 : 박정순, 박미령,「가족계획홍보계몽교육을 위한 미혼여성의 지식, 태도, 조사연구」, 가족계획연구원, 1979, p.69.
홍문식, 서문희,「미혼근로여성의 인구 및 성에 대한 지식, 태도 조사연구」, 1984, p.55.
한국여성개발원, 전게서, p.58.

이들의 避姙方法에 關한 知識의 習得經路를 比較하면 未婚母는 未婚勤勞女性보다, 未婚勤勞女性은 一般 未婚女性보다 學校援業, 新聞, 라디오, TV, 어머니, 친구로부터 知識을 習得하는 比率이 낮은 反面 週刊誌나 女性雜誌로부터 知識을 習得하는 比率은 높았다. 特히 未婚母의 경우 週刊誌나 女性雜誌에 의해 知識을 習得하는 比率이 높았고 비디오, 외설잡지로부터 知識을 習得하는 比率도 12.4%나 되었다. (表Ⅴ-28參照)

〈표Ⅴ-28〉 세집단의 피임방법 지식정보원 비교

정 보 원	미혼여성[1] N=947	미혼근로여성[2] N=918	미 혼 모[3] N=1,406
주간지, 여성잡지	75.3	84.1	잡지 60.4 주간지 58.0
신 문	41.6	23.5	11.0
라 디 오	70.0	54.1	13.2
T V	61.1		27.2
포스타 및 인쇄물	49.2	15.6	17.8
학교 수업	60.0	49.1	25.2
친 구	73.3	66.5	56.3
어 머 니	29.2	28.3	4.1
이웃 어른	36.2	10.6	*
비디오, 외설잡지	*	*	12.4
직장 및 사회단체	*	*	20.1

자료 : 1) 박정순외, 전게서.
2) 홍문식외, 전게서
3) 한국여성개발원, 전게서
* 해당항목 없음

Ⅵ. 青少年 性教育 現況 및 青少年 서비스 機關 現況

앞 章에서는 韓國 青少年의 性과 관련된 問題에 관해 살펴보았다. 즉 韓國社會가 青少年의 性問題에 대해 매우 保守的임에도 불구하고 性과 관련된 青少年 問題는 점점 增加하고 있어 深刻한 社會問題가 되고있는 實情이다.

그와 같은 青少年의 性에 관한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性教育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青少年을 위한 性教育은 家庭이나 學校, 社會 等 여러 곳에서 多樣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學校의 性教育에만 依存하고 있는 形便이다. 이 章에서는 學校의 性教育 現況을 살펴보고 아울러 重要한 性教育 資料인 性教育 册字들을 分析하며 또한 青少年을 위한 서비스機關의 實態와 事業現況을 把握해보고자 한다.

1. 性教育 現況

우리나라에서 性教育에 대한 論議는 教育界의 關心있는 學者와 教師들에 의해 散發的으로 이루어져 왔을 뿐, 아직까지 教育의 어느 水準에서도 體系的인 教育課程의 일환으로 研究되거나 教育되지 못한 實情이다.

現在 高等學校에서 取扱하고 있는 性教育의 內容은 대략 生物과 家庭科目에서 部分的으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生物學에서 다루는 性의 問題란 生理的인 次元에서 客觀的인 사실에 대한 部分的인 知識을 다룰 뿐이고 家庭科도 性의 問題를 斷片的으로 다루고 있다. 더구나 家庭科의 境遇는 女學生만을 對象으로 하고 있어 男學生의 性教育의 機會는 더욱 不足하다.

한편 趙貞叔의 硏究에 나타난 高校生들의 性知識 程度는 다음 表와 같다.

〈표Ⅵ－1〉 성지식의 이해도

구분 / 성지식	남학생				여학생				합계			
	아주 잘 안다	조금 안다	모른다	계 (%) N=610	아주 잘 안다	조금 안다	모른다	계 (%) N=600	아주 잘 안다	조금 안다	모른다	계 (%) N=1,210
1) 데이트 하는것	57.5	29.2	13.3	100.0	58.2	35.4	6.4	100.0	57.9	32.3	9.8	100.0
2) 키스 하는것	51.1	29.9	19.0	100.0	30.1	20.2	49.7	100.0	40.1	24.8	35.1	100.0
3) 애무 하는것	13.9	42.1	44.0	100.0	18.4	30.2	51.4	100.0	15.9	36.7	47.4	100.0
4) 성행위에 대하여	20.0	30.0	50.0	100.0	6.8	30.9	62.3	100.0	12.1	30.5	57.4	100.0
5) 자위행위에 대하여	17.3	39.6	43.1	100.0	15.3	32.7	52.0	100.0	16.5	36.7	46.8	100.0
6) 이성의 생식기 구조	10.3	16.7	73.0	100.0	7.1	30.3	62.6	100.0	8.7	23.5	67.8	100.0
7) 몽정에 대하여	5.0	14.2	80.8	100.0	7.1	10.5	82.4	100.0	6.1	12.3	81.6	100.0
8) 임신에서 출산하기까지의 과정	6.4	10.7	82.9	100.0	4.0	10.6	85.4	100.0	5.4	10.6	84.0	100.0
9) 피임방법에 대하여	2.4	8.4	89.2	100.0	3.1	4.7	92.2	100.0	2.8	6.5	90.7	100.0
10) 성병에 관해서	5.4	7.9	86.7	100.0	3.5	8.3	88.2	100.0	4.8	8.0	87.2	100.0

자료 : 조정숙, 전게서, p.32.

表Ⅵ－1에 나타난 바와 같이 男·女 高等學生의 性에 관한 知識程度는 앞 장에서 살펴본 그들의 異性交際와 性交 經驗率에 비하면 지극히 未洽하다. 高校生들은 一般的으로 데이트, 키스와 같은 事實的인 內容에 대해서는 적어도 80％ 以上의 學生이 잘 알거나 아주 잘안다고 表現한데 反하여 性行爲에 대해서 아주 잘아는 學生은 全體의 12.1퍼센트였고 모른다고 應答한 學生도 57.4퍼센트로 나타났다. 특히 學生들의 知識程度가 가장 낮은 分野는 避姙方法(90.7％), 性病(87.2％), 姙娠에서 出産까지의 過程(84.0％), 夢精(81.6％), 의 順으로 나타났다.

또한 高校生들이 性知識을 習得하는 經路에 關한 硏究들을 보면 大部分이 父母나 兄弟, 敎師를 통해 知識을 習得하기보다는 交友를 통해서 혹은 週刊誌, 라디오, ＴＶ 等 大衆媒體를 통해서 知識을 習得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表Ⅵ－2參照)

즉 金 大植의 硏究에 의하면 農村, 中小都市, 大都市를 통틀어 39.1퍼센트의 高校生이 新聞, 雜誌 等의 大衆媒體를 통해, 25.1퍼센트는 交友를 통해 性知識을 얻었다. 趙 貞叔의 硏究에서도 週刊誌나 雜誌(57.6％), 라디오나 ＴＶ(43.6％)를 통해 性知識을 얻은 學生이 大部分이어서 煽情的이고 興味本位의 週刊誌나 雜誌를 통해 誤導되고 그릇된 性知識을 習得할 可能性을 지닌다.

그러한 結果는 未婚母들 중 60.4퍼센트가 月刊雜誌, 58.0퍼센트가 週刊誌, 56.3퍼센트가 친구를 통해 性 및 避姙에 관한 知識을 習得했다는 데에서도 나타난다.

〈표Ⅵ－2〉 성지식의 입수경로

연구자	연구시기	조사대상	성지식 입수경로	
김대식	1981	농촌, 중소도시, 대도	신문, 잡지등매스콤	39.1%
		시 고등학생 708명	교우	25.1%
		(남: 349, 여: 359)	부모, 교사	16.6%
조정숙	1981	서울시 고등학생	주간지, 잡지	57.6%
		1,210명	라디오, TV	43.6%
		(남: 610, 여: 600)	교사	9.1%
			부모, 형제	5.6%
			무응답	1.4%
			모른다	0.8%
한국여성개발원	1984	미혼모 1,406명	월간잡지	60.4%
			주간지	58.0%
			친구	56.3%
			TV	27.2%

자료: 김대식, 고교생의 성문제에 관한 연구,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p.36.

조정숙, 전게서

한국여성개발원, 전게서

青少年들이 希望하는 性教育의 内容은 다음 表Ⅵ－3과 같다.

〈표Ⅵ－3〉 중·고생의 성교육에 대한 태도 및 희망사항

연구자	연구시기	조사대상	찬성율	희망기관	희망하는 내용
조재명	1981	청주시내 D여자중학교 132명		학교(55.9%) 가정과교사 (47.2%) 전문가의 특별 강의(31.7%)	
김대식	1981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 고등학생 708명		학교수업 (60.6%)	
경북교육위원회	1982	문경여고생 1,436명	93.8%	학교(76.6%) 사회기관 (11.7%) 가정(10.5%)	피임법, 성병, 임신중절, 가족계획까지 (70.2%) 이성교제, 배우자선택까지 (11.7%) 기초적 성지식 (9.8%) 남녀의 성차정도 (5.0%) 기타 (0.9%)
〃	1982	학부형	89.0%	학교(85.0%)	
김한경 박인서	1985	13-24세의 산모 620명		간호원, 가족계획요원(32.4%) 가족(28.1%) 의사(20.6%)	

자료 : 조재명, 여자중학생을 위한 성교육내용 탐색, 충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대식, 전게서, p.40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지정 연구학교 문경읍 문경고등학교 연구중간보고서, 「여고생의 성교육을 위한 자료개발과 그실천연구」, 1982
김한경, 박인서, 전게서

淸州 市內 D女子中學生 132名을 對象으로 한 調査에서는 55.9 퍼센트의 學生이 學校에서 性에 관해 가르쳐주기를 원한다고 應答하였는데 그 實施方法으로서 47.2퍼센트가 家政科 敎師가 家庭時間에 조금씩 다루어주기를 願했고 內容에 따라서는 專門家(15.5%)의 特別講義(31.7%)를 並用해주기를 원했다. 農村, 中小都市,大都市의 男女 高校生을 對象으로 한 硏究에서도 學生들의 60.6퍼센트는 學校授業의 關聯敎科에서 性敎育을 實施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慶尙北道 敎育委員會 指定 硏究學校인 문경여자고등학교의 中間 報告書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1,2,3學年 1,436名의 學生 中 性敎育이 必要하다고 대답한 學生은 全體의 93.8퍼센트에 이른다. 그리고 76.6퍼센트가 學校에서 性敎育을 擔當해 주기를 願했고 社會機關이나 家庭에서 性敎育을 擔當해 주기를 願하는 境遇도 각각 11.7퍼센트, 10.5퍼센트를 차지했다. 더우기 學父兄을 對象으로 한 調査에서도 性敎育이 必要하다고 한 境遇가 89.0퍼센트였고 性敎育을 學校에서 擔當해주기를 願하는 境遇도 85.0퍼센트나 되었다.

문경여고생들이 願하는 性敎育의 具體的인 內容을 分類해보면 異性交際,配偶者 選擇程度를 願하는 學生은 11.7퍼센트, 男女의 性差程度에 대해서는 5.0퍼센트, 受精, 姙娠, 出産程度에 대해서는 2.3퍼센트, 基礎的 性知識에 대해서는 9.8퍼센트, 其他 0.9퍼센트인 反面 避姙法, 性病, 姙娠中絶, 家族計劃까지를 敎育시켜줄 것을 願한 學生은 70.2 퍼센트나 되어 靑少年들이 올바르고 具體的인 性知識을 願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13 ~ 24才의 産母를 對象으로 한 硏究에서는 32.4퍼센트가

看護員이나 家族計劃要員이, 28.1퍼센트는 家族, 20.6퍼센트는 醫師가 性教育을 擔當해주기를 원해 이미 出産의 經驗을 가진 女性들의 境遇 專門家에 의한 具體的인 性教育을 希望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2. 性教育 册子 分析

우리나라에서 性教育에 대한 關心이 高潮되기 始作한 60年代 以後에 出版된 性教育 册子의 數는 百여가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章에서는 우리나라 性教育의 現況을 알아보려는 意圖에 따라 國內의 著者에 의해 씌어진 性教育 册子 中 비교적 最近에 出版된 代表的인 것들만을 選擇하여 分析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外國의 性教育 册子 內容과의 比較를 위해 外國册子 2권을 選擇하였다. 分析의 對象이 된 册子는 22권인데, 이들 中 우리나라의 册子 20권을 年度別로 區分하면 1960年代에 出版된 것이 1권, 1970年代 것이 5권, 1980年代에 出版된 것이 14권이다. 그것을 著者別로 分類해 보면 大韓家族計劃協會의 것이 6권으로 가장 많고 그 外에 梨大 인간발달연구소, 서울市 教育研究院, 性教育指導研究會, 勞動部, 순결교육연구회 等의 機關 이름으로 出版된 것이 6卷이며 나머지는 社會事業家, 教育學 教授, 醫學博士, 青少年 指導者, 基督教 青少年 善導會長 等에 의해 씌어진 것이다.(表Ⅵ－4參照)

〈표Ⅵ－4〉 성교육책자의 저자, 출판사명, 출판연도 비교

	저 자 명	책 명	출판사명	출판연도
국내	전 광 문	고교생을 위한 순결교육	동구문화사	1968
서적	김 사 달	순결한 SEX－오늘의 성교육	정 음 사	1971
	대한가족계획협회	사랑의 성교육		1972
	주정일, 이정우	어린이 성교육	보신문화사	1973
	순결교육연구회	순 결 교 육	수 학 사	1974
	이화여대 인간발달 연구소	중·고교생을 위한 성교육	교육출판사	1977
	성교육지도연구회편	성교육사례집	신원출판사	1982
	주정일, 백경임	0세부터 사춘기까지 성교육	샘 터 사	1982
	대한가족계획협회	가꾸어서 꽃필때까지		1982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성교육자료－교사용－		1983
	이화여대 인간발달 연구소	중·고교생을 위한 성교육	교육출판사	1983
	대한가족계획협회	젊은 삶 속에서		1983
	노 동 부	알찬삶 행복한 가정		1983
	대한가족계획협회	근로청소년 성교육지침서 －지도자용		1984
	〃	사랑과 성		1984
	안 재 정	중고생성교육과 상담 (청소년선도총서 6)	한국기독교 청소년선도회 출판부	1984
	정 철 희	청소년상담사례－고민하는 아이들	한국문예사	1984

	저 자 명	책 명	출판사명	출판연도
	김 정 태	성이란?-청소년과 부모님을 위한 성교육	삼 중 당	1985
	송 운 하	나도 어른이 되는거래요	유 림 사	1985
외국 서적	B. Spock (강 민역)	스포크박사의 성교육	창 원 사	1975
	W.B. 포메로이 (강 치영역)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지정문화사	1981

이들 冊子의 對象은 一般 및 青少年인 境遇가 9권, 教師인 境遇가 3권, 父母, 高校生, 어린이를 對象으로 하는 境遇가 각 2권씩이었고 그 外에 勤勞青少年과 勤勞青少年 指導者를 對象으로 한 것이 각 1권씩이었다.

性教育 冊子의 內容을 보면 表Ⅵ-5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大韓家族計劃協會의 冊들은 男女의 生殖生理, 姙娠, 避姙方法, 性病 等 性問題에 대해 醫學的 知識을 土臺로 한 비교적 具體的인 指針을 收錄하고 있으며 서울市 教育研究院의 「性教育資料」나 梨大 인간발달 연구소의 「中·高校生을 위한 性教育」, 性教育指導研究會의 「性教育事例集」에는 人間의 發達段階에 맞추어 幼年期부터 高等學校 程度까지에 알맞는 性教育 內容을 段階的으로 다루고 있는것이 特徵이었다. 이들 冊子는 '70年代, '80年代에 이르면서 보다 多樣하고 具體的인 內容을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外國의 性教育 冊子와 比較할 때 아직도 우리나라의 性教育 冊子는 抽象的으로 純潔을 强調하는 式의 內容이나 生殖生理와

같은 딱딱한 內容이 主를 이루고 있다. 특히 늘어나는 青少年의 性交經驗率을 考慮할 때 願치 않는 姙娠을 豫防하기 위한 避姙의 方法에 대하여 實質的인 도움을 줄 수 있는 內容과 이미 姙娠이 되었을 때 어떻게 對處해야 하는지의 方法에 對한 具體的인 言及이 不足하다. 一部 册子에서 人工姙娠中絶에 대해서 다루기는 했으나 그 具體的인 內容은 매우 限定되어 있다.

앞으로는 青少年들에게 自身의 行動에 대해 責任을 질 수 있는 意識과 함께 願하지 않는 姙娠을 豫防할 수 있는 避姙에 대한 强調가 더욱 절실히 要請된다고 하겠다.(表Ⅵ－5參照)

〈표Ⅵ－5〉 성교육책자의 내용

저자 / 책명	내 용
전광문/고교생을 위한 순결교육	순결교육은 왜 필요한가, 이성교제, 자위, 연애성의 태도와 모랄, 임신과 출산, 성병예방
김사달/순결한 Sex	순결의 영원성, 남녀교제, 성에 대한 고민, 자위, 연애, 새로운 성모랄, 임신과 출산, 성병예방
대한가족계획협회/ 사랑의 성교육	성교육의 정의, 필요성, 성교육 방법, 유년기, 사춘기의 성교육, 연애, 결혼, 남녀생리, 성행위, 임신, 수태조절, 성병, 성도착현상과 치료
주정일, 이정우/ 어린이 성교육	어린이 성교육, 가족계획과 성교육
순결교육연구회/ 순결교육	순결교육의 정의, 인간의 발달, 연령에 따르는 성교육(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남녀교제의에티켓

저자 / 책명	내 용
이대인간발달연구소/ 중·고교생을 위한 성교육	청소년기의 성교육, 성교육의 실제계획, 성교육의 내용 및 방법(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성교육지도연구회/ 성교육사례집	성교육의 길잡이(유년기, 전사춘기, 후사춘기)
주정일, 백경임/0세부터 사춘기까지 성교육	바람직한 부모의 성교육, 영아기, 유아기, 학동기, 청소년기의 성교육, 다른나라의 성교육
대한가족계획협회/가꾸어서 꽃필때까지	생식생리 및 임신생리, 무엇이 문제인가 이성교제, 혼전임신, 가족계획, 피임방법
대한가족계획협회/ 슬기로운 생활	모자보건, 올바른피임, 피임방법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성교육자료-교사용	성교육의 필요성, 의의, 목표, 내용, 유아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성교육
대한가족계획협회/ 젊은 삶 속에서	유아기의 순결교육, 사춘기의 성변화, 임신, 수태조절, 피임방법, 10대의 성병, 동성애
노동부/알찬 삶 행복한 가정	근로청소년과 성교육, 성교육의 실제(이성교제 순결, 남녀의 생식생리, 임신, 출산, 성병예방및 치료, 지도방법론(미혼모 상담사례 및 지도방법 성비행 방지사례, 홍보교육, 보조자료 개발, 여가선용지도)

저자 / 책명	내 용
대한가족계획협회 / 근로청소년 성교육 지침서 - 지도자용	근로청소년의 성문제와 지도, 성과 정신건강 청소년의 성변화, 생식생리, 이성교제, 결혼과 부부생활, 임신, 분만, 가족계획, 피임방법, 성병
대한가족계획협회 / 사랑과 성	청소년기의 성장발달, 남녀의 생식기구조, 임신과 출산, 원하지 않는 임신예방, 피임방법, 임신중절, 성병예방
안재정 / 중고생 성교육과 상담	성교육의 과제, 중학생의 성교육, 고교생의 성교육, 수태조절, 성적비행, 미혼모, 현대사회와 성문화
정철희 / 청소년 상담 사례	청소년 상담사례 (비행, 이성문제, 가정, 학업, 진로, 성격문제, 정신장애, 신체건강문제)
김정태 / 성이란 ? - 청소년과 부모님을 위한 성교육	성교육의 필요성, 교육의 방법, 사춘기, 사정, 포경, 월경, 임신과 분만, 가족계획과 피임법, 인공임신중절수술, 불임증, 성교, 성병, 이성교제, 결혼
송운하 / 나도 어른이 되는 거래요	성장하는 어린이의 이야기, 불안, 고민

3. 青少年을 위한 서비스機關 分析

1984年 現在의 醫療機關數는 다음 表Ⅵ-6과 같다.

〈표Ⅳ-6〉 의료기관수

의 료 기 관 명	수
종 합 병 원	170
병 원	310
의 원	7,584
특 수 병 원	13
치 과 병 의 원	2,752
한 방 병 의 원	2,628
부 설 의 원	256
조 산 소	503
계	14,216

자료 :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985, pp.106-107.

그러나 14,216個 醫療機關 中 青少年을 위한 專門病院은 한군데도 없다. 學校青少年을 위해서는 各 中·高等學校, 혹은 大學校마다 양호실이나 保健所가 마련되어 있으나 青少年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實情이다.

또한 青少年을 위한 서비스 中에서 性과 관련된 重要한 事業의 하나가 家族計劃事業인데 그동안의 家族計劃事業은 主로 既婚女性을 對象으로 한 것이었을 뿐 未婚 青少年을 對象으로 한 것은 거의 없었다. 1984年 現在 우리나라에는 全國的으로 2,139名의 家族計劃要

員이 있으나[51] 그들은 모두 15-44 歲의 有配偶 可姙婦人만을 對象으로 家族計劃事業을 벌이고 있으며 靑少年層의 未婚 可姙女性은 그 對象에서조차 除外되어 있다.

大韓家族計劃協會에서도 22名의 專任講士, 85名의 市·區幹事, 139名의 郡幹事 等 모두 246名의 職員을 通해 敎育·弘報活動을 벌이고 있다.[52] 또한 保健所와의 協調下에 避姙에 關해 無料로 相談해 주며 먹는 피임약이나 콘돔같은 避姙기구를 200원이라는 낮은 價格으로 供給하기도 한다.

그러나 靑少年들이 그와 같은 서비스를 얼마나 利用하는지에 關한 統計資料는 나와있지 않으므로 正確한 把握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靑少年을 위한 性敎育 弘報用 필름, 슬라이드 等의 視聽覺 敎材를 開發하여 普給시키는 機關이 극히 적어 現在 性敎育을 위한 視聽覺敎材들은 大韓家族計劃協會에서, 性病에 關한 슬라이드는 韓國人口保健硏究院이나 赤十字社 等에서만 만들어지고 있다.

特히 우리나라에는 靑少年들이 出産할 때, 혹은 人工姙娠中絶을 원할 때 利用할 수 있는 靑少年만을 위한 機關이 한군데도 없다. 1982年부터 大韓家族計劃協會에서 구로, 부평, 부산, 대구, 마산 等 다섯군데의 工業地域에 靑少年을 위한 相談 서비스 機關을 設置하여 勤勞靑少年들의 性問題를 相談해주고 解決해주려는 勞力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한

51) 보건사회부, 「가족보건사업참고자료」, 1985, p.17.
52) 대한가족계획협회, 전게서

地域當 1,2名의 相談員만이 配置되어 있어 그들이 담당할 수 있는 青少年의 數는 制限되어 있다.

또한 各種 入養機關들은 子女를 抛棄하려는 未婚母에게만 相談해주고 있을 뿐, 姙娠 後 人工姙娠中絶을 願하거나 혹은 子女를 直接 養育하려는 未婚母를 위해서는 거의 아무런 서비스도 提供되지 못하고 있다.

Ⅶ. 結論 및 提言

本 硏究의 目的은 韓國靑少年의 性問題를 中心으로 하여 그 現況과 問題點을 밝힘으로써 靑少年의 性問題의 解決策을 模索하는데 必要한 參考資料로 活用하려는 것이다.

그와 같은 目的을 위하여 本 硏究에서는 靑少年의 槪況, 健康狀態, 性問題의 背景, 性과 관련된 問題들, 性敎育 現況 및 靑少年을 위한 서비스 機關의 實態 分析의 順序로 內容이 展開되었다.

우리나라 靑少年의 性問題는 西歐 여러나라의 靑少年의 性問題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意見이 支配的이어서 政府 혹은 靑少年指導者들조차 靑少年의 性問題에는 거의 關心을 기울이지 않아 왔던 것이 事實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靑少年 性問題의 正確한 實態를 把握할 수 있는 硏究가 매우 貧弱한 형편이며 現在까지 施行된 大部分의 硏究도 그 對象이 學生靑少年에게 局限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問題의 素地가 있는 勤勞靑少年이나 遊休靑少年에 對한 實態는 거의 把握되고 있지 못한 實情이다.

그러나 槪存의 硏究結果를 綜合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靑少年의 性과 관련된 問題들은 매우 심각한 狀態이다. 즉 靑少年의 婚前性交 經驗率이 急激히 增加하는 趨勢와 함께 婚前姙娠, 出産, 性病等의 問題가 대두되고 있어 社會問題化될 소지가 크다고 하겠다. 特히 性에 關한 問題들이 쉽게 露出되지 않으며 結婚 前의 性問題는 더더욱 隱蔽되기 쉬운 우리나라의 文化的 風土를 考慮할 때 實際의 靑

少年들에 의한 性問題는 앞의 硏究結果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現在 이루어지고 있는 性敎育의 內容은 至極히 斷片的이고 漠然하며 體系的이지 못할 뿐 아니라 아직도 純潔敎育의 次元에 머무르는 實情이다. 그러므로 現在의 性敎育은 性을 지나치게 神秘한 것으로 여기게 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禁忌視하게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立場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靑少年의 性問題를 미연에 防止하고 올바른 性敎育의 方向을 提示하기 위해 다음의 몇가지를 提案하고자 한다.

첫째, 靑少年의 性問題 實態에 關한 硏究가 廣範圍하고도 多樣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이제까지의 硏究들은 大都市의 中·高等學生을 中心으로 한 것이 大部分이었으나 앞으로는 全國的 規模의 調査가 이루어져야 하며 特히 勤勞靑少年과 遊休靑少年에 關한 實態 調査가 實施되어야 한다. 또한 靑少年의 姙娠, 出産에 關한 資料 뿐만 아니라 社會的으로 隱蔽되기 쉬운 人工姙娠中絶, 未婚母, 性病, 賣春行爲 等에 關해서도 正確한 實態를 파악할 수 있는 硏究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各種 社會機關 및 硏究機關, 政府 측에서 靑少年의 性問題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關心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靑少年을 對象으로 한 性敎育이 보다 體系的이고 效率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學校靑少年을 위해서는 獨立된 課程으로서의 性敎育이 專門的 知識을 갖춘 敎師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勤勞靑少年에게는 各 事業場 單位로 性敎育 및 相談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事業主가 關心을 기울여야 하며 그 外의 遊休靑少年을 위한 알맞는

프로그램도 따로 開發되어야 할 것이다. 例를 들면 青少年의 興味를 끌 수 있는 册子나 필름, 슬라이드 等의 視聽覺教材를 開發하여 效果的인 性教育을 實施하는 方案도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父母와 教師 뿐 아니라 青少年을 雇傭하고 있는 事業主와 政策立案者들이 青少年의 性教育의 重要性을 認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開發되어야 한다.

셋째, 青少年들이 性에 關한 知識을 얻는데 가장 큰 影響을 미치는 大衆媒體에서 青少年의 性問題에 關心을 기울일 뿐 아니라 青少年에게 올바른 性教育을 傳達하는 役割을 해야 한다.

넷째, 避姙에 對한 積極的인 弘報와 事業이 必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父母와 학교 뿐 아니라 家族計劃事業에 從事하는 擔當者들이 青少年 出産의 重要度를 勘案하여 青少年을 위한 避姙의 弘報와 事業에 더 많은 努力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性問題로 苦悶하는 青少年이나 未婚母 혹은 性病에 罹患된 青少年들이 相談이나 도움을 願할 경우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機關이 到處에 마련되어 빠르고 效果的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青少年 機關이 國家 次元의 社會保障制度의 하나로 定着되어야 할 것이다. 現在 韓國人口保健研究院의 支援下에 大韓家族計劃協會에서 運營되고 있는 "青少年 성상담전화"와 같은 事業도 全國的으로 擴大됨이 바람직하다.

以上에서 우리는 青少年의 性問題를 미리 防止하거나 혹은 解決할 수 있도록 다섯가지의 提案을 提示했다. 그러나 青少年의 性問題가 그 社會의 全般的인 文化風潮와 價値觀, 道德觀과 깊이 聯關된다는 事實

을 勘案할 때 우리 社會의 成人들이 올바른 價値觀과 道德觀을 가지는 것이 必要하며 靑少年들에 對해 더 많은 理解와 愛情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준상, "중·고교생의 성에 대한 태도"「가족계획」, 대한가족계획협회, 1971.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여고생의 성교육을 위한 자료개발과 그 실천연구"「문경읍 문경고등학교 연구 중간 보고서」, 1982.

경제기획원, 가족계획연구원, 「1978년 세계출산력조사」1977.

경제기획원, 「인구동태 표본조사」, 1980

경제기획원, 「총인구 및 주택센서스」, 1980.

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 1982.

경제기획원, 「사망원인통계」, 1982.

경제기획원, 「인구동태표본조사」, 1983.

공세권외, 「한국의 사망력과 사망원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3.

구본석, 이성교제에 관한 조사연구, 고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5.

김규환외, "비행 청소년의 성 관심도에 관한 조사"「오늘의 청소년」제 6 집, 한국청소년문제연구소, 1982.

김길자, 서울시내 여학생의 성적 성숙에 관한 일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1

김두성, "한국여성의 월경에 관한 조사연구"「아세아 여성연구」제 1 집, 숙대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1962.

김대식, 고교생의 성문제에 관한 연구,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1.

김매자외, "여대생들의 흡연에 관한 조사"「중앙의학」4 : 3, 1981.

김미화, "여학생의 초경에 관한 조사연구"「한국 보건교육학회지」제 1 권 제 1 호 1983.

김사달, 「순결한 SEX-오늘의 성교육」, 정음사, 1971.

김일순외, "최초 한국인의 사망력의 경향에 관한 고찰"「예방의학회지」제 2 권, 1969.

김정태, 「성이란 ? - 청소년과 부모님을 위한 성교육」삼중당, 1985.

김종령, 한국청소년의 가정환경에 관한 사회정신의학적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 논문, 1978.

김한경외, 「서울시 청소년 출산에 관한 의학적 및 사회·심리학적 조사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노동부, 「알찬삶, 행복한 가정」, 1983.

대한가족계획협회, 「사랑의 성교육」, 1972.

대한가족계획협회, 「가꾸어서 꽃필 때까지」, 1982.

대한가족계획협회, 「젊은 삶 속에서」, 1983.

대한가족계획협회, 「사랑과 성」, 1984.

대한가족계획협회, 「근로청소년 성교육지침서-지도자용」, 1984.

마경자, 한국 중학교육의 남녀공학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0.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85.

문현상외, 「출산력과 가족계획 : 1971년 출산력및 인공임신중절조사 중간보고」, 1972.

민병근, "한국청소년의 대마초 흡연빈도"「한국청소년에 관한 사회 정신의학적 연구」중앙대학교, 1976.

민병근외, "한국청소년학생의 자살충동 및 자살기도율에 관한 사회·정신의학적 연구"「한국의 과학」, 제11권 제 2 호, 1979.

민병근외, "한국청소년의 음주빈도 및 음주양상에 관한 사회정신 의학적 연구" 「오늘의 청소년」제 3 집, 한국청소년문제연구소, 1979.

민병근, "한국청소년의 대마초 흡연실태에 관한 종단적 연구"「한국의 과학」제12 권, 제 3 호, 1979.

민병근외, "한국 청년기 여학생의 초경시기 및 초경시 정서적 반응에 관한 연구" 「오늘의 청소년」제 3 집, 한국청소년문제연구소, 1979.

민병근외, "근로청소년 자녀들이 지각하는 모친취업의 사회정신의학적 연구" 「오늘의 청소년」제 5 집, 1981.

박말순, 고등학생의 성의식에 관한 연구, 고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3.

박병태외, 「1976년 전국출산력및 가족계획평가조사」, 1978.

박영수, "한국의 연령별 사망률 및 평균수명에 관한 연구"「공중보건잡지」제 7 권 제 1 호, 1970.

박영임, "일부지방도시 고등학생의 흡연실태 및 태도에 관한 조사"「중앙의학」 43 : 2 1982.

박정순외, 「가족계획 홍보계몽교육을 위한 미혼여성의 지식, 태도 조사연구」, 가족계획연구원, 1979.

박준희외, 「중고교생을 위한 성교육」, 서울 교육출판사, 1983.

백명기, "비행청소년의 약물사용빈도 및 약물사용양상에 관한 사회정신의학적 연구"「신경정신의학」, 제20권 제 2 호, 1981.

변상호외, "청소년의 습관성 약물 등의 남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국립과학수사연구소연보」, 1978

변종화, 고갑석, 「1978, 출산력과 가족계획실태조사」, 가족계획연구원, 1980.

변종화외, 「도시저소득층 지역보건의료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2.

보건사회부, 「가족보건사업참고자료」, 1985.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985.

서봉연외, "순결교육을 위한 기초조사"「중앙의학연구소 조사연구」 제38집, 1965.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성교육자료－교사용」, 1983.

성교육지도연구회편, 「성교육사례집」, 신원출판사, 1982.

송운하, 「나도 어른이 되는 거래요」, 유림사, 1985.

순결교육연구회, 「순결교육」, 수학사, 1974.

스포크, B, , 「스포크 박사의 순결교육」, 강 민 (역), 창원사, 1975.

안재정, 「중고생 성교육과 상담」(청소년선도 총서 6), 한국기독교 청소년선도회출판부, 1984.

오옥자, 성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오정미, "서울시내 1개 종합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실태조사"「공중보건잡지」제12권, 제 2 호, 1975

유상렬, "10대 미혼모와 청소년문제"「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79, 가을호

유재수,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약물사용 및 음주·흡연 경험자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의료보험관리공단, 「통계연보」1980, 1981, 1982, 1983,

의료보험연합회, 「통계연보」, 1980, 1981, 1982, 1983,

ESCAP, "The Situation of Youth in Asia and Pacific Region, "Note by the Secre-

이기석외, "비행청소년의 가출에 관한 사회정신의학적 연구"「신경정신의학」 제 20권 제 2 호, 1981

이길홍의, "청소년 정신건강"「오늘의 청소년」제 6 집, 한국청소년문제연구소, 1982.

이병태, 「자동차 여성근로자 연구」, 전국자동차노도조합, 1975.

이시백외, "혼전임신경험 부인의 출산력수준 고찰"「가족계획논집」제 5 호, 1978.

이재창외, 「청소년문제 종합진단연구 - 자아개념 가치관을 중심으로 - 」한국교육개발원, 1983.

이정균, "습관성 약물중독에 관한 연구"「신경정신의학」9 : 1970.

이주일, "한국 청소년의 성 의식에 관한 사회정신의학적 연구"「오늘의 청소년」 제 2 집, 한국청소년문제연구소, 1978.

이혜주, 한국 남자 고등학생의 성적 발달에 관한 조사, 이대 석사학위 논문, 1964.

이훈구, "청소년의 사회지각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행동과학연구소 연구노트」, 9 (3), 1980.

임종권외, "한국의 인공임신중절실태 고찰"「인구보건논집」제 4 권 제 2 호 1984.

임종권외, 「인공임신중절실태에 관한 연구」, 가족계획연구원, 1979.

임희섭, 「현대 한국에 있어서의 가치지향의 변화와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전광문, 「고교생을 위한 순결교육」, 동구문화사, 1968.

전동휘외, "일부 대전지역 고등학생들의 흡연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대전간전논문집」, 제 7 집, 1981.

정범모, "국가발전과 청소년,"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청소년문제세미나보고서, 1977.

정철희, 「청소년상담사례 - 고민하는 아이들」, 한국문예사, 1984.

조상문, "한국 고등학생들의 흡연에 관한 조사연구"「공중보건잡지」 제10권제 1

제 1 호, 1973.

조순행, "청소년 정신장애에 관한 임상적 고찰"「신경정신의학」, 제18권 제 3 호, 1979.

조재명, 여자 중학생을 위한 성교육내용 탐색, 충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조정숙, 고교생의 성교육 필요성에 관한 고찰,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주정일, 이정우,「어린이 성교육」, 보신문화사, 1973

주정일, 백경임,「0 세부터 사춘기까지 성교육」, 샘터사, 1982.

청소년대책위원회,「청소년백서」, 1985.

최의순외, "서울시내 여대생의 흡연실태조사," 「중앙의학」38 :5, 1980.

포메로이,W·B.,「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지성문화사, 1981.

한국대학연감 편찬위원회,「한국 대학연감」, 창간호, 1982.

한국방송공사,「국민시간생활조사」, 1983.

한국여성개발원,「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 1984.

한국인구보건연구원,「국민건강조사보고」, 1983.

함 웅, "근로청소년의 자살성향과 산업재해와의 상관관계"「신경정신의학」, 제19권, 1980.

홍문식외,「미혼 근로여성의 인구 및 성에 대한 지식, 태도 조사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4.

홍성봉, "서울시 일원의 인공유산의 최근 경향"「대한산부인과 학회지」제22권 제 9 호, 1979.

홍소자,「학과교육 측면에서의 청소년 문제의 원인, 대책」, 한국교육개발원, 1982.

tariat for the Regional Preparatory Meeting for the International Youth Year, 1983.

Moon, Ok-Ryun, "An Analysis on Adolescent Fertility Managenent in the ROK "「보건학논집」, 제13호, 1981.

Toolan, H. S, "Suicide and Suicidal Attempt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18, 1982.

Werkman, S. L., "Psychiatric Disorders of Adolescence, "American Handbook of Psychiatry, 2nd Ed., Vol. 2, 1975.

WHO, "Young Peoples Health-A Challenge for Society", Report of a WHO Study Group on Young People and Health for all by the year 2000, 1985. (Unpublished).